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珍 源

# 濟 州 島 民 謠 考

—그 郷土生活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Folk Songs in Jeju Island

- Through the Life of the District -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 育 學 科

國語教育專攻

梁 炓 鏡

81.12  
5.22.2  
21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珍 源

# 濟 州 島 民 謠 考

—그 郷土生活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Folk Songs in Jeju Island

- Through the Life of the District -

이 本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請求 論文으로 提出합니다.

1984年 6月 日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國語教育專攻

梁 炆 鏡

梁燧鏡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李 明 九 

審査委員 崔 珣 協 

審査委員 金 學 成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1984年 月 日

# 目 次

I . 緒 論 .....	3
1 . 緒 言 .....	3
2 . 濟州島民謠의 蒐集 經緯 .....	6
II . 本 論 .....	8
1 . 濟州島民謠와 그 鄉土生活 .....	8
(1) 濟州島民謠의 背景 .....	8
(2) 濟州島民謠의 分類 .....	15
2 . 濟州島民謠와 內容 .....	19
(1) 警 世 .....	19
(2) 勤 勞 .....	29
(3) 自 歎 .....	65
(4) 運 命 .....	79
(5) 享 樂 .....	86
(6) 諧 謔 .....	92
(7) 諷 刺 .....	94
III . 結 論 .....	99
< 參 考 文 獻 > .....	103
< 英 文 抄 錄 > .....	104

# I . 緒 論

## 1 . 緒 言

우리 民族의 感情을 읊은 것이 우리의 民謠이다. 悠久한 민족사와 더불어, 민족 생활의 伴侶로서 소박한 민족 생활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민요에서 우리민족의 감정을 알아볼 수 있고, 性情과 향토적 氣質, 風俗 등을 살필 수 있다.

민요는 民衆와 노래이며, 民俗과 생활을 노래한 노래이다. 민요는 어느 特定한 작가에 의하여 創作된 노래가 아니며, 또 어느 특정한 階層이나 특정인에 의하여 불리어지던 노래도 아니다. 말하자면, 민요는 庶民 大衆에 의해 生成發展해 왔고, 또한 그들에 의해 享有되었던 노래라 할 것이니,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이와 관련있는 생활을 해 왔다. 땀 나무를 하는 樵童이 지게 발목을 두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논밭에서 일하는 쟁이질의 동작까지 노래와 같이 장단을 맞추었고, 밤새는 줄 모르고 두들기던 아낙네들의 다듬이질이 민요의 장단이며, 이에 맞추어 부르는 것이 민요였다. 그러므로, 민요는 우리네 핏속에 脈脈히 전해오는 민족의 가락이다. 민요야말로, 樵童에서 汲婦까지의 서민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喜怒哀惡등의 純粹한 인간 감정을 기교나 수식 없이 솔직하게 읊어 口傳하는 우리의 노래라 하겠다.

민요는 傳來的 民間生活을 全領域에 亘하여 集約한다. 모든 民

間傳承이 그렇듯, 오늘날 민간 생활 전반과 직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요는 基層文化의 원시적 형태로 고정되고 化石化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生動하면서 민중을 躍動시키고 鼓舞하여 生活相 내지 향토성을 반영한다. 아득한 원시 생활에 있어서도 민요의 基盤은 未分化 예술이나마 완성되어 있어, 有史以前의 문학이라는 部門을 設定하기 이전 시대에도 민요는 존재하였을 것이니, 문학의 元祖로서, 또는 민족문화의 원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인 바, 민요의 연구는 민속을 밝히고, 나아가서, 민족사를 밝히는 좋은 傍證이 될 뿐 아니라, 국문학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요가 민족 생활 속에서 자랐다고 볼 때 그 민요 속에는 민족의 생활 감정이 如實히 反映되고, 또 各己 지방에 따라 향토적인 특색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요를 통해서 민족성을 究明할 수도 있으며, 좁게는 향토민의 生活樣相이나 生活觀도 살필 수 있다.

“흔히들 우리의 민요가 향토성이 稀薄하다고들 하나, 그 이유인 즉 문화적 영향으로 朱子學의 文化統制策을 들며, 또는 정치적으로 中央集權制의 영향인 것을 들 수 있다. ” 1) 勿論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민요가 향토적 특색이 희박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다. 특히 濟州島의 경우는 향토성 내지는 민중

---

註 1)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서울: 二友出版社, 1980, pp.251-252.

의 性情과 生活觀까지도 잘 드러나 보이는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濟州島는 지리적으로 海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陸地部와 교통이 疎遠했고, 그 까닭에 특수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어느 特定階級의, 특정 사회에서 발생하고 불리어 졌던 것이 아니라 庶民, 大衆 사회에서 불리어 지면서 傳承되어 내려오고 있는 노래이다.

濟州島는 바다로 둘러 싸인 섬으로서, 가운데 높은 봉우리 漢拏山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펼쳐진, 농어촌의 서민 사회에서 비교적 고된 庶民生活과 더불어 濟州島 民謠는 발생하였고, 육지부와는 동떨어진 특수한 섬 생활과 더불어 불리어온 서민의 노래가 바로 濟州島 民謠이다. 더우기, 제주도 민요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濟州島란 地域社會의 지리적 특이성과,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육지부와는 다른, 民俗 文化圈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도 농어촌 서민 사회에서 불리어 졌던 민중의 노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민요에 제주 島民의 생활, 역사, 情緒는 勿論 濟州 方言이 그대로 살아있고, 제주도 농어민의 가락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文化水準 향상과 교통의 발달로 문화 생활의 교류는 생활 풍속에도 균동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추세는 濟州島 傳統 사회의 특이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농어촌에서 불리어 지고 있는 서민의 노래, 민요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도의 민요를 연

구하고, 그 基本構造를 保存하고, 의미를 깨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민요는 歌唱되는 지역의 민중 생활 전반과 直結된다고 볼 때 제주도 민요에 드러나 그 향토 생활을 연구하려면, 민요를 낳은 제주도 민요의 배경이 되는 환경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본도는 섬이라는 空間的 與件으로 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 왔다 할 것이니, 그를 大別해서 자연적 조건인 환경과, 人爲的 조건인 환경의 二大조건이다.

자연적 조건이란, 지리적 여건인 立地性을 말하는 것이고, 인위적 조건이란, 時空的 與件인 사회성을 말한다. 이 두 개의 조건이야말로, 본 도민의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작용과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도 特有的 생활 양식을 낳게 했으며, 또 이 특유한 생활 양식이 특유한 민요를 낳게 했다. 그러므로, 본도 환경 여건인 風土性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도를 이해하는 길인 동시에 선인들의 意識構造와 생활관은 물론, 고유 문화의 形成要因까지도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2. 濟州島 民謠 蒐集 經緯

筆者는 濟州島 胎生으로 濟州島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밭에서 農事 일이나, 들과 바다에서 勞動을 할 때 가끔 따라가 보았고, 그 때마다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인 民謠를 들을 수 있었다. 平素 집안에서 父母님과 親知들이 일을 하며 부르는



濟州島 民謠도 자주 듣게 되었다. 當時는 民謠를 蒐集한다는 意圖는 全然 없었고,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들었으며, 자주 듣는 중에 흥내 내어 부른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은연중에 머리에 배게 되었고, 印象깊었던 노래는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中學校 時節부터는 陸地部에서 學校를 다니면서 生活을 하게 되었는데 陸地部에서의 노래와는 달리, 濟州島의 民謠가 特異함을 느끼고, 약간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教壇生活에 몸담으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夏季放學等 濟州島에서 지낼 때 意圖的으로 濟州島 民謠를 蒐集해두게 되었으며, 時間이 許與될 때 父母님의 도움도 얻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번 拙稿를 作成하면서는 이미 다른 분이 蒐輯한 것도 接하게 되었고, 參考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拙稿에 提示한 濟州島 民謠의 大部分은 筆者가 蒐集한 것이며, 모으는 過程에서 分明치 못한 것은 다른 文獻에서 引用도 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本稿에 提示한 民謠에 唱者를 밝히지 않은 것은 筆者가 蒐集한 것이며, 그 밖의 것은 根據를 밝혔다.

이 論文에 수록된 민요는 주로 主題別로 分類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특수한 내용을 가진 민요는 部類別로 묶어 놓은 것도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濟州島 固有의 발음으로 적으려고 노력했으므로 표준어와 맞춤법에 統一性を 잃은 것이 많다. 또한, 註解에 있어서도 표준어로 옮겨서, 그 의미를 소상히 풀이하려 애쓰다 보니 詩歌的 抒情性을 다소 잃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 Ⅱ . 本 論

### 1 . 濟州島 民謠와 그 鄉土生活

#### (1) 濟州島 民謠의 背景

濟州島는 그 입지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하여 소위 環海天險의 섬인데다가, 참혹하리만큼 지배당한 역사가 본도의 역사이다. 三神山의 하나인 瀛洲山이라는 憧憬의 이름은 神話일 뿐이고, 현재의 이름인 漢拏山(1950 m)을 主峰으로 하여 이루어진 一大火山島이다. 한라산 白鹿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약 330에 達하는 側火山<sup>2)</sup>이 傾斜를 이루며 바다로 뻗어 내린 地表위에 점점이 솟아 있다. 한 主峰을 중심으로 수많은 側火山인 “오름”이 둘러 쌓은 것은 유례가 드문 일로서, 이것이 바로 이 섬의 奇觀을 낳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 瀛洲 十景歌

이던 지주도 옛날은 탐나국  
삼진산 이디엔 명송지도 하구나  
소시절 명송지 이 오름 저 오름  
이 오름 이 바당 한락산 명송지

---

註 2) 側火山이란 熔岩이 산 허리로 부터 噴出하여 이루어진 작은 火山이며 寄生火山인데 이렇게 해서 된 濟州島의 岳을 “오름”이라 부르고 있다.

( 解 )

여기는 제주 도 옛날에는 탐라 국  
삼신산 이 곳엔 명승지도 많구나  
사시절 명승지 이 산악과 저 산악  
이 산악 이 바다 한라산 명승지

火山島 특유의 岩石美와 아울러 계곡과 洞窟을 형성한 것이 이 섬의 특색이다. 透水性이 강한 玄武岩으로 地表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표에 水量이 적고, 이런 까닭으로 논(畚)은 거의 없어 農土도 거의가 밭(田)이다. 더구나, 그 農土는 대부분 火山灰土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아주 瘠薄한 편인데다가, 옛날부터 주민의 主食은 보리(麥)와 조(粟)일 수 밖에 없었다.

地表의 土壤은 透水性이 있어 山에서 흐르는 물은 지하의 盤石을 타고 내려와 海邊에서 湧泉이 되어 솟아나며, 주민들은 이 물을 飲料水로 利用해 왔다. 따라서, 산의 중간 지점에서 居住하는 島民들은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飲料水로 이용했기 때문에, 식수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濟州島 聚落이 海岸에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는데,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샘(泉)은 盤石을 따라 지하로 흘러 내려 해변까지 가서 바닷물이 닿는 곳에서 湧出하게 되는데, 이런 물을 길는 곳을 “물”이라고 하며, 이 물에서 집까지 음료수를 운반할 때 쓰는 器具를 “허벅”이라 한다. “漢拏山과 州邑地에는 샘물이 매우 적었고, 산골 주민은 五里의 거리에서 물을 길는다면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으며 終日 한 두번 밖에

길지 못하는 먼 거리의 물길은 곳도 있다. 짠 샘이 많고 반드시 통으로 지어서 다니는데 (女子가 많이 지어감) 이는 많이 걸어 가자는 것이다.

“漢拏山及州邑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 則謂之近水 或終日一汲二汲 而多鹹泉汲必以木桶負行 (凡什物多 女負取多汲也)”<sup>3)</sup>

婦女子들이 “허벅”을 등에 짊어지고 물을 길러 나르는데 그 물길은 시간이 거의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 진다. 潮水干滿과도 영향이 있으며, 물을 길는 婦女子들이 농사도 같이하므로 밭과 들로 나가기 전이나 돌아온 후에 물을 길게 되므로, 아침 새벽, 또는 저녁이 普通이다. 부녀자들이 물길는 勞苦는 물론 크겠지만은 부락 부녀자들의 만남과 對話의 廣場이요, 情報交換과 신세 타령으로 긴장을 解消하는 場所이기도 하다. 여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소리” (民謠)가 나오게 된다.

소리 흐는걸 송시엔 말라  
일이 버치난 소리로 풀주  
굽엉 심쓰고 일엉 심쓰꼭  
소리로나 이기쟁 햄주.

(解)

노래하는 것을 흥이라고 말하지 말라  
일이 겨우니까 노래로 해소함이로다

---

註3) 金淨, 「濟州風土錄」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p.11.

굽어 엮드리어 힘쓰고 일어나 힘쓰곤 하며  
노래로 ( 이 겨운 일울 ) 이겨 내려 함이로다.

이는 육체적 노동의 힘겨움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노래하는 마음을 辨明아닌 변명으로 自慰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오래만에 시집갔던 사촌 언니가 친정에 왔는데 “물”에서 동생과 만나 인사겸, 그 동안의 소식을 묻는다.

성님 성님 스촌 성님  
시집 사리 어떻 흠데가  
이야 이야 말도 말라  
고치장이 맵땡 흥난  
시집삼보당 매울 커냐

( 解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 살이 어떻습디가  
예야 예야 말도 말아라  
고추장이 맵다고 하지만  
시집 사는 것보다 맵겠는가?

自然環境인 立地的 조건은 본 도민에게 있어 생활 수단에 直結되어 투쟁과 극복의 악조건으로 나타났고, 絶海 孤島性을 宿命的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食水難과 농토의 조건은 부녀자들의 활동을

촉진시켰고 肉體的 노동으로 生業을 삼을 때, 생계 해결을 急務로 한 極限狀況 속에서 남녀의 구별없이 활동했어야 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부녀자들이 바다 속을 누비는 자력질도 불가피 했으며, 물론 들에서의 농사도 지어야 했다. 따라서, 제주도 민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勤勞謠와 自歎謠가 대부분이고 남녀별로 분류해 볼때 女謠의 勤勞歌가 많다는 것은 이것을 증명해 준다. 4)

“땅에 바위와 돌이 많아 흙에 두어치나 퍼지고 흙은 가볍고 건조하기 때문에 밭을 개간함에는 반드시 牛馬를 몰아 밟아 播種하며, 또 木綿과 삼이 생산되지 아니하며 의식이 모두 모자라고, 오직 해산물을 캐어서 生業이 버금가게 된다. 風土錄에 의하면 三邑이 다 한라산 밑에 있어 平土는 절반도 되지 않아, 밭을 가는 흙은 고기의 배를 애는 듯 해야 했다.

“地多岩石 鋪土數寸 土性浮燥 墾田必驅牛馬以踏 又不產木綿麻糸 衣食俱乏惟採海物以中生業 風土錄 三邑皆在漢拏山之麓 平土無半畝 耕者 如桃別無腹”<sup>5)</sup>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밭을 밟는 馬群의 모습이다. 조(粟)농사는 그 종자를

---

註 4) 秦聖麒, 南國의 民謠, 서울; 正音社, 1979.

5) 金尙憲, 「南槎錄」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11.

파종함에는 흙뿌리기(散耕)를 하는 바 씨를 뿌린 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말을 50匹 내지 100匹 정도 함께 모아 그 馬群으로 하여금 밭을 밟게 하는데, 이 때 우두머리가 되는 말 한 마리는 사람에게 끌려 그 방향을 향도하면, 다른 모든 말들은 그 뒤를 따라 밟아 나가며 말들의 뒤에서는 말을 몰아 쫓는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이 때 “소리”(노래: 밭밟리는 소리)를 하게 된다.

[ 밭 밟리는 소리 ] ( 밭 밟는 소리 )

어러 어러 어러  
 요 ㅁ쉬들아 저ㅁ쉬들아  
 돌돌이 돌아 소멍  
 고비 청청 돌아 오라  
 신난 디만  
 어서 혼정 불르라  
 아명 하여도  
 누가 학교 말 일이어  
 높은 디만 불람시민  
 혼 두 시간에 판이 날걸  
 어어렁 하아량

< 秦聖麒 · P. 151 - 298 > 6)

註 6)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9. 의 151面 298번으로 수록된 민요라는 뜻이다. 앞으로의 인용은 이 방식으로 통일한다. 인용자의 번호표시가 없을 때는 面數 또는 제목을 표기한다.

( 解 )

어러 어러 어러  
요 말 떼들아 저 말 떼들아  
들돌이 돌아 서면서  
돌아가는 고비 모퉁이에서 멀리 돌아 와라  
밭을 갈아서 흙덩이가 있는 데만  
어서 빨리 ( 부지런히 ) 밟으라  
아무리 해도  
내가 하고야 말 일이지 않는가  
높은 흙덩이 있는 데만 밟고 있노라면  
한 두 시간에 판가름이 날걸  
어어렁 하아랑.

민요를 통해서 민족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민요 연구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自我認識上 당연한 과제이다. 민요가 强者의 權勢에 구속됨이 없이, 오직 民衆의 心琴에 울려 支持共鳴에 의하여 성립되는 만큼 민요속에는 그들의 절실한 物心的 呼訴와 需要가 反映表出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究明한다는 것은 가능할뿐 아니라, 捷徑이기도 할 것이다.

“소리”이며 “놀래”인 濟州島 민요가 오늘날 일반 대중의 생활과 直結되는 음악으로 통하고 있지만 그 속에 생활상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警世性, 諦念性, 宿命性, 勤勉性, 樂天性, 諷刺性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인간의 본능을 提示한 情歌 등도 있다.



(2) 濟州島 民謠의 分類

민요의 분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分類 基準이 다르고, 또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민요 분류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미 분류했던 몇가지 예를, 참고로 제시하고 주제별로 이를 분류해 본다.

〈高晶玉의 分類〉

1. 內容上 差別에 의한 것
  2. 歌唱者의 性 年齡上 差別에 의한 것
  3. 歌唱되는 地域上 差別에 의한 것
  4. 노래의 時代性(新, 古)의 差別에 의한 것
  5. 노래와 민족 생활의 結合面의 差別에 의한 것
  6. 노래의 形態上 差別에 의한 것
  7. 曲調 또는 명칭상 差別에 의한 것
  8. 長短(길이)의 差別에 의한 것
  9. 成立條件의 差別에 의한 것
  10. 韻律上 差別에 의한 것
  11. 표현상 傾向의 差別에 의한 것
- 이와 같이 分類基準을 提示하였다.<sup>7)</sup>

---

註 7)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서울; 首善社, 1949. p.98.

<任東權의 分類>

1. 唱者의 年齡, 性別

2. 主題 및 內容

3. 歌唱 過程

의 3 조건을 고려해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 하였다.<sup>8)</sup>

민요는 자료의 완전 수집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겠다. 또 분류를 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자료를 정리할 수가 없으며,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또 체계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하다.

秦聖麒은 “南國의 民謠”에서 약 1,500首의 민요를 수집, 정리하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이는 主題 및 機能上의 複合的 分類이다.

<秦聖麒의 濟州島 民謠 分類>

- ① 男 謠
  - 1) 娛樂歌
    - ㄱ. 장기노래
    - ㄴ. 꿀패노래
    - ㄷ. 절궁노래
  - 2) 輓 歌
    - ㄱ. 喪輿노래
    - ㄴ. 달구노래
  - 3) 勤勞歌
    - ㄱ. 어부노래
    - ㄴ. 밭가는 노래

註 8)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서울: 二友出版社, 1980. p.43.



- ㉓ 男女謠      8) 打 令
  - ㅅ. 탕건 노래
  - ㄱ. 오돌또기
  - ㄴ. 어야옹
  - ㄷ. 瀛洲十景歌
  - ㄹ. 逢枝歌
  - ㅁ. 타 령
  - ㅂ. 雜打令
  - ㅅ. 군인노래
- 9) 勤勞歌
  - ㄱ. 발뺨는노래
  - ㄴ. 곰배질노래
  - ㄷ. 타작노래
  - ㄹ. 따비질노래
  - ㅁ. 김매는노래
- 10) 童 謠
  - ㄱ. 遊戲謠
  - ㄴ. 聲戲謠
  - ㄷ. 諧謔謠
- 11) 土俗歌
- 12) 問答歌<sup>9)</sup>

위의 분류는 다만, 참고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도민의 인생관에 중점을 두고 主題와 譬喩法, 修辭등을 좇아

---

註 9)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9. p.8.

島民의 생활과 연관 시키면서 연구하기로 하되, 그 主題에 中心을 두어 1. 警世 2. 勤勞 3. 自歎 4. 運命 5. 享樂 6. 諧謔 7. 諷刺 別로 分類한다.

## 2. 濟州島 民謠와 內容

### (1) 警 世

[ 生活에서 訓戒와 運命의 譬喩 ]

1 간곡	2 간세	3 스미예	4 농왕	1. 간교	2. 간사	3. 옷소매에		
5 ㄱ랑	6 줍쌀	7 뇌	8 엇이	9 먹영	4. 농고서	5. 가랑	6. 줍쌀	
10 놈의	11 어멍	말	12 엇이	13 살라	7. 뇌	8. 없이	9. 먹고서	
말을	14 ㄱ랑	15 옷 입을	16 혼들	10. 남의	11. 어머니	12. 없이	13. 살아라	14. (말을) 하여서
17 속광	18 셈사	제	19 어딜	20 가리	15. 웃음을	16. 한들, 하였던들	17. 속과	18. 생각이야
					19. 어디를	20. 가겠는가		

< 秦聖麒 · p.118 - 216 >

### ( 解 )

간교하고 간사한 행동은 옷소매에 감추어 두고서  
조그만 줍쌀 부담없이 먹으면서  
남의 어머니 ( 시어머니 또는 동네 어른 ) 비난없이 살아라  
쓸 데 없는 말이나 남의 홍보는 말을 하여서 임시 호감을  
산들  
듣는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은 어디 가겠는가  
그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한다.

시집살이를 한다든가, 또는 세상을 살아 나가는데 對人關係의 處世를 말하는 것으로 간교, 간사한 言行은 옷소매에 감추듯, 겉으로 나타내지 말고 좁쌀 밥이라도 부담없이 편하게 먹으면서, 남의 어머니 비난이나 흉허물 없이 살도록 하라는 訓戒이다. 남을 헐뜯거나 흉을 보는 등 필요 없는 말을 일러 바쳐, 당장에는 호감을 살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은 어디 가겠는가, 事必歸正이요, 元亨利正을 뜻한다.

[ 孝 道 ]

양친 <sup>1</sup>부미 <sup>2</sup>신 <sup>3</sup>사람들아  
<sup>4</sup>산 <sup>5</sup>제 <sup>6</sup>소심 <sup>7</sup>하소서 흥네  
<sup>8</sup>죽영그네 <sup>9</sup>삼괴상 <sup>10</sup>꾸명  
 삼현관에 양집수 <sup>11</sup>세왕  
 술 석 잔에 침작을 혼들  
 어느 잔이 구러닝 혼다

1. 부모 2. 제신 3. 사람들아  
 4. 살았을 5. 때에 6. 孝心  
 7. 하소서 8. 죽고서 9. 영결식  
 때 하직상 10. 꾸미고서 11. 세위  
 서 12. 술잔이 술더냐고 한다

( 解 )

兩親父母 제신 사람들아여  
 살아 제실 적에 孝心하소서  
 죽고 나서 영결식 제삿상 차려 놓고서  
 제사 지내는 곳에 兩執事를 세우고  
 술을 잔에 부어 침작을 혼들

어느 잔의 술이 줄어들더냐고 한다,

( 죽은 혼령이 마시지 않는다는 뜻 )

살았을 제 孝道를 다 해야지 父母가 돌아 가신 다음 아무리 제삿상을 훌륭히 차려 놓고, 祭官으로 하여금 整裝을 갖추어 술을 부어 올리나 이는 形式에 不遇하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生前에 孝道해야 함을 強調한 訓戒歌이다.

[ 警 世 ]

1	밭이랑	2	사컨	3	에엿을	보라
	논이랑		사컨	4	시두를	보라
	집이랑		사컨		이웃을	보라
5	산이랑	6	씨컨	7	빌레를	보라
	사돈을	8	하컨		근본을	보라

1 . 밭을	2 . 사려면 ( 買入 )
3 . 엿을, 가장자리를	
4 . 논둑, 논두렁	5 . 墓
6 . 쓰려면	7 . 盤石
8 . 하려면	

( 解 )

밭을 사려면 가장자리를 보고 사라 ( 耕農에 不便이 없는가 )

논을 사려면 논두렁을 잘 보고 사라 (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

집을 사려면 이웃을 보고 사라

墓를 쓰려면 밑에 盤石이 깔려 있거나 않는가

살펴 보고 묘자리를 잡아라

사돈을 하려면 그 根本을 보고 사돈을 맺어야 한다.

濟州島의 밭은 육지부와 달라, 밭 주변에 담장을 꼭 쌓아야 한다. 그것은 牛馬의 침입이나, 防風의 구실을 한다고 한다. 고로, 밭을 耕作하는 조건으로 運搬手段의 與件이라든지, 또 밭의 끈데끈데에 “설피밭”이란 雜草 동산이 있어 耕作 불가능한 곳이 많아 實面積에 비해 쓸모 없는 땅이 있다. 따라서, 밭의 가장자리의 조건은 밭의 좋고, 좋지 못한 것을 決定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墓를 “산”이라고 하는데, 墓를 쓸 때 “빌레”를 보라는 것은 땅 밑에 岩盤이 없는가 살펴 보라는 뜻으로서 濟州島에서는 땅을 팔 때 돌이 나오면 그 돌은 파서 캐어 낼 수 있는 돌들이 아니라, 도저히 캐어 낼 수 없는 큰 盤石이란 點이 육지부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것이다. 세상을 살아 가는데 환경과 여건을 잘 살피서 賢明한 智慧와 바른 選擇을 警戒한 것으로서, 평범하면서도 地域的 생활 여건을 잘 반영했다.

참으로 濟州島 民謠야말로, 제주도 先住民이 먼 옛날로부터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濟州島民의 모든 정신적 所產 가운데서도 가장 普遍化한, 서민의 음악이며, 생활 철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민요는 민중 생활의 한 集約的 表現으로서 그 時代의 社會相을 담백 반영한, 人情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島는 결코 아름다운 곳일 수 만은 없다. 메마른 농토에 처참한 역사는 島民의 몸을 짓부순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지는 건 지극한 身勞打습이다. 地瘠民貧을 宿命처럼 거느린, 말없는 休



火山 기슭에서 被虐의 역사속에 不敗의 信念은 民謠를 吐한다.<sup>10)</sup>

[ 宿 命 ]

1 가난하<sup>1</sup>곡 2 죄로<sup>2</sup>운 3 집이  
 4 병이 5 드난 더 죄롭<sup>3</sup>다  
 가난하<sup>4</sup>도 6 말곡 죄롭<sup>4</sup>지도 7 마<sup>5</sup>랑  
 8 금당 못에 9 물만<sup>6</sup>이 살라

1. 가난하고 2. 가엾은 3. 집에  
 4. 병 5. 드니까 6. 말고  
 7. 말고서 8. 연못이름 (조천면  
 조천리 중팔에 있는 못이름)  
 9. 물처럼

( 解 )

가난하고 가엾은 집에  
 병이 드니까 더 가엾다  
 가난하지도 말고 가엾은 사람이 되지도 말아  
 金堂池의 물처럼 살 수 있으면 한다.

가난하고 서럽게 살아온 것은 우리네의 祖上때부터 避할 수 없  
 었던 宿命的인 것이지만 가난한 가운데서 雪上加霜으로 病魔까지 침  
 입했으니 더욱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바라  
 고 願하는 바를 장마철에나 旱害가 甚한 때도 변함없이 水位를  
 유지하는 金堂池의 모습을 憧憬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所望이요, 生活哲學인 것이다.

註 10) 東國輿地勝覽, 濟州牧建置沿革條  
 「百濟 東聖王 二十一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其主聞之遣使乞罪乃至」

[ 宿命 : 婦女生活 ]

열 여섯에 시집 <sup>1</sup> 가난	1. 가니까 2. 사랑하는
임도 <sup>2</sup> 괴는 <sup>3</sup> 이내 몸이여	3. 이몸이여 4. 20세에
<sup>4</sup> 코뚜물에 <sup>5</sup> 시 애기 <sup>6</sup> 난에	5. 3명의 6. 나니까, 나고서
업고 안고 <sup>7</sup> 걸루멍 <sup>8</sup> 감시난	7. 걸게하고 8. 가고있노라니까
<sup>9</sup> 질가던 <sup>10</sup> 놈들도 뒤돌아 보더라	9. 길가던 10. 사람들도

( 解 )

열 여섯에 시집을 가니  
 내님도 나를 사랑해 주는 몸이 되었구나  
 갓 스물에 세 애기를 낳고  
 ( 나들이를 하는데 ) 업고, 안고, 걸니면서 가고 있노라니  
 길가던 남들도 뒤돌아 보곤 하더라.

早婚이 가져다 준 悲劇이라고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早婚이 가져다 준 負擔이라 함이 옳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옛사람들은 福으로 여겼고, 당연한 宿命으로 여겼던 것이다. 現代라면 産兒를 제한하고 한 명의 아기인데도 유아차에 태우는 등 편리하게 걸어 다니려면 위와 같은 경우는 세 아기를 함께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업고, 안고, 손잡아 데리고 가는 것은 多福이라기보다 負擔일 수 밖에 없으며, 또 이런 負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 諦 念 ]

1 가민 2 어멍 3 보리엔 마는  
 아니 4 가난 5 그리멍 6 살암구나  
 7 가퀸 8 가랭 9 보내영 10 두어네  
 11 울난한 12 지드려 13 접저

1. 가면 2. 어머니 3. 볼수  
 있으려면 4. 갔기 때문에  
 5. 그리워하면서 6. 사는구나  
 7. 갈테면 8. 가라고 9. 보내여  
 10. 두고서 11. 올시기가 되니  
 12. 기다려 13. 지는구나

( 解 )

가기만 하면 어머니를 볼 수 있겠지마는  
 아니 갔으니 그리워 하면서 사는구나  
 갈테면 가라고 보내어 두고서  
 울만하니 기다려 지는구나

出嫁한 딸과 이별 후에 기다려지는 心情을 읊은 노래이다. 딸의  
 입장에서 친정에 가기만 하면, 사랑하고 그리운 어머니를 볼 수  
 있으려면 가지 않으니 볼 수가 없다. 아니, 가지 않은 것이 아  
 니라 갈 수 없었던 것이다. 自古로 出嫁外人이란 말들을 한다.

濟州島에서도 例外는 아니어서 갈 수 없었던 모양이다. 누가 못  
 가게 막아서가 아니라, 그 여전이 자주 갈 수 없다. 그래서, 一  
 年이면 한 번, 또는 두번정도 친정엘 가게 되는데, 이 시기가 되  
 면 어머니는 딸을 기다려지는 것이다. 어머니를 두고 가려는 딸  
 을 갈테면 가라고 박절하게 보내는 어머니의 心情은 Paradox이다.

이런 逆說的 사랑의 發露는 金素月の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에서 그 情愴을 찾을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 民族이 지닌, 보편적 情緒이기도 하다.

[ 思 母 ]

1 가건 2 오맹 일러 랑 3 두엄  
4 가난 울쭈 5 몰람구나  
6 어멍 7 신디 가는이 8 시민  
내말 기별 9 하키여 마는

1. 가며는 2. 온다고 3. 두고서  
4. 가고나서 5. 모르는 구나  
6. 어머니 7. 계신데 8. 있으면  
9. 하겠다마는

( 解 )

가면 또 오마고 일러 두고서 가시고 나니  
울 쭈 모르는 구나  
어머니 계시는 곳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소식 기별 하겠다마는 ……

어머니를 함께 모시지 못한 딸의 心情을 읊은 노래이다.

[ 母 情 ]

가마귀도 1 어멍아 2 한다  
3 생이도 어멍아 한다

1. 어머니여 2. 한다 3. 참새도  
4. 형제는 5. 무슨 6. 죄를

우리 <sup>4</sup>성젠 <sup>5</sup>뫼신 <sup>6</sup>췌 <sup>7</sup>짚언  
<sup>8</sup>어멍엔 말도 <sup>9</sup>몰라닝 <sup>10</sup>핍찌

7. 지엿기에 8. 어머니라고  
 9. 모르느냐고 10. 하는구나

( 解 )

가마귀도 어머니라 부르고  
 참새도 어머니라고 부른다  
 우리 형제는 무슨 죄를 지엿기에  
 어머니라는 말도 몰랐느냐고 하는 구나

이는 자매가 어머니 없음을 아쉬워하고 그리운 母情을 읊은 노래이며

[ 母 情 ]

나 <sup>1</sup>놀래야 <sup>2</sup>산넘성 가라  
 나 놀래야 <sup>3</sup>물넘영 가라  
 산을 넘고 물넘영 <sup>4</sup>가민  
<sup>5</sup>어멍 얼굴 <sup>6</sup>보리연 마는  
<sup>7</sup>아니 가난 <sup>8</sup>그리멍 <sup>9</sup>살암저

1. 노래야 2. 산을 넘어서  
 3. 물넘어서 4. 가면 5. 어머니  
 6. 볼 수 있겠지마는  
 7. 아니가니까 8. 그리워하면서  
 9. 사는구나

( 解 )

나의 노래야 산넘어 가거라  
 나의 노래여 물넘어 가거라  
 산을 넘고 물을 넘어 가면  
 어머니 얼굴 보련마는  
 아니 가므로 그리워 하면서 사는구나

비록 몸은 못가드라도 노래가 되어 많은 사연을 안고 산을 넘어 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파 하는 情恨을 읊었다.

이 밖에도 어머니나, 同氣間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情恨을 그린 민요 몇개를 나열한다.

우리 어멍 가는 <sup>1</sup>디랑  
 물 <sup>2</sup>맹지로 <sup>3</sup>드릴 <sup>4</sup>놉씨  
<sup>5</sup>다심어멍 가는 디랑  
<sup>6</sup>설피낭그로 드릴 놉씨

1. 데는 2. 명주로 3. 다리를  
 4. 놓으십시오  
 5. 계모  
 6. 가시덤불나무

( 解 )

우리 어머니 가는 데는  
 물명주로 다리를 놓으십시오  
 계모가 가는데는  
 가시덤불 나무로 다리를 놓으십시오

1 설룬 부미 2 돌고 간 체시  
 3 잠근 개철 날이나 도라  
 4 태고 만나 5 보리연마는  
 어멍 6 상엿 7 막심을 8 풀저

1. 서러운부모 2. 데려간 사자  
 3. 잠근 열쇠 4. 열고  
 5. 보겠다면는 6. .... 에 대한  
 7. 마음을 8. 풀겠다

( 解 )

서러운 나의 부모 데리고 간 사자  
 잠근 열쇠 나에게나 다오  
 열어나 만나 보련마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나  
 풀어 보고 싶다.

(2) 勤 勞

濟州島는 농토가 좁아 零細한 까닭에, 바다에 依存했고, 밭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바다에서도 일을 하며 生計의 手段으로 삼았다.<sup>11)</sup> 그렇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이상의 활동과 勞力이 必要했다. 대체로 도민들은 勤勉했고, 誠實했으며, 努力한 것만큼 所得을 바라는 것 外에 投機나, 우연한 요행은 바라지 않았다. 人心

---

註 11) 1963 年度 < 濟州道 統計年報 >

人口 84 %의 農家를 통털어서도 3町步 以上の 農土를 가진 자가 전혀 없다시피 심각한 零細性에 허덕이고 있다.

이 좋았고, 어려운 일은 共同으로 解決하는 이른바, 協同精神이 강했으며, 경위바른 생활을 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는 물론, 勞動을 할 때 自然發生的으로 “소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 민요의 대부분이 노동요라고 한다. 12)

벚노래, 潛女(海女)노래는 바다에서 살고, 또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卽, 바다가 生活場所이며, 또 죽음의 장소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가 많다. 無盡藏한 바다의 產物은 그들의 생활을 潤澤하게 해주는 반면에 한 번 실수하면 생명을 잃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기쁨과 怨恨이 짙은 곳이 바로 바다이다.

濟州島人치고 가족의 누군가를 바다에서 잃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祖上이 아니면, 형제 친척의 누군가는 바다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노래는 처참한 경우가 있다. 또, 바다의 생활은 極限된 생활이기에, 그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낭만을 동경하고 高大廣室이나 平溫한 安息處를 그리워 하기도 했다.

濟州島에는 “발 불리는 소리” (발 밟기 노래)나 “나무 깨는 놀래” “따비질 소리”들이 남아 있다. 13) 元來에는 모든 작업시에 민요를 伴奏삼아 불렀던 것이나, 어느 사이에 노래가 생활에서 離脫하여 無味乾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작업시에 노래를

---

註 12)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서울; 一潮閣, 1981. pp.102-103.

註 13) 任東權, 韓國民俗學論攷, 서울; 集文堂, 1982. pp.278-279.



부른다는 것은 작업의 疲勞를 덜뿐아니라, 작업을 즐겁게 遂行할 수 있는 기분을 돕는 것인데, 현대는 작업에서 노래를 상실하므로, 작업에서 오는 壓力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아직도 「따비질」 「밭볼리기」 등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남아 있다는 것은 傳承文化的 殘存形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밭 볼리는 소리 )

<sup>1</sup>월월월 ………  
 의어이어이이다  
 아어어이 어이다 양  
 일천 간장이 스프르  
 아어어이  
 이 <sup>2</sup>몰들아 고비고비  
 돌아오라 <sup>3</sup>어라라  
 유월절이  
 전후 삼일이 <sup>4</sup>당하엿저  
 월월하너  
 간들간들 부는 <sup>5</sup>벼롬에  
 귀를 <sup>6</sup>지울령 걸어 <sup>7</sup>보제  
<sup>8</sup>밭이랑 <sup>9</sup>볼리 커든

1 . 말을 모는 소리  
 2 . 말들아  
 3 . 말을 모는 소리  
 4 . 당하엿도다  
 5 . 바람에  
 6 . 기울러서 7 . (절어)보자  
 8 . 밭을 9 . 밟아내려면

석 섬 닷말지기 <sup>10</sup>불리꼭  
 산이랑 <sup>11</sup>넘켜들랑  
<sup>12</sup>한락산이나 넘어 보라  
 월월흐난  
 십이목이로구나

10 . 밟을 것이며  
 11 . 넘을러면  
 12 . 한라산

< 秦聖麒 · pp.151 - 152 - 299 >

( 解 )

월, 월, 월 .....  
 의어의어 이어 이다  
 아어어이 어이다 양  
 일천 간잠이 스르르한다  
 아어어이  
 이 말들아 굽이굽이  
 돌아오라 어라라  
 유월절이  
 전후 삼일이 당도하였다  
 월월하니  
 간들간들 부는 바람에  
 귀를 기울여 걸어 보자꾸나  
 밟을 밟아 내려거든  
 석 섬 다섯마지기를 밟아내고

산을 넘으려거든  
한라산처럼 높은 산을 넘어보라  
월, 월, 하니까  
십이목어로구나

濟州島의 농토 거의가 밭이다. 논(畓)은 거의 없으며 논은 南濟州의 海邊 聚落에 약간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밭이라고 해야 薄土로서 火山灰土로 이루어져 있을 뿐아니라, 地殼은 玄武岩으로 形成되어 甚한 漏水現狀은 食水難과 함께 밭농사에도 큰 打撃을 준다. <sup>14)</sup> 더우기, 風多의 본 도에는 바람이 불면 재(灰)와 같은 흙이 바람에 날려 파종을 한 것도 흩날려, 쓸모 없이 되어버리고 만다. 특히 조(粟)는 春夏節에 걸친 本島의, 主農인데 이때가 몹시 乾燥한 季節이고, 또 파종을 한 밭의 흙이 들떠 있어 바람에 날리기 쉽고, 농작물이 말라 죽기가 쉽다. 말하자면, 파종한 흙에 毛細管現狀을 원활히 할 수 없는 土質이기 때문에 人爲的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파종한 흙을 잘 밟아서 굳게 다지는 方法이 最善의 解決策이다. 그래서, 조(粟)농사는 흩뿌리기(散播種)를 하고, 여기 牛馬의 배를 몰아 놓고 밟는 작업이 風俗으로 되어있다. <sup>15)</sup> 이 때 부리는 牛馬는 보통 50頭, 많으면 100頭 정도까지를 몰아 밟게 되는데 이 때 신기한 것은 代

---

註 14) 前掲書, p.279.

註 15) 前掲書, pp.274 - 282.

表되는 말의 뒤를 다른 모든 馬群이 順座하며 뒤따른다는 點이다. 그래서, 馬群의 주인은 代表되는 말을 타거나 이끌고 앞장서면 다른 5~6명의 農夫는<sup>16)</sup> 맨뒤에서 馬群을 물고 소리를 한다. 이렇게 흙을 덮으면서 다지는 作業을 “밭볼린다”고 하며 이 때 부르는 노래가 “밭 불리는소리”로서 밭밟는 民謠인 것이다.

그 內容은 여러가지이나 대개 馬群을 사람으로 가정하고 타일러 이해시키고 대화하는 歌辭들로서 낭만과 風流가 넘친다.

濟州島의 農事 일로 “곰배질”이 있다.

[ 곰배질 소리 ]

서두리 더럼마 서두리 더럼	1. 고무레 질이야 2. 속마음이
요런 날에 요 <sup>1</sup> 곰배질사	3. 얼마를 4. 상할 것이냐
<sup>2</sup> 성이 <sup>3</sup> 얼말 <sup>4</sup> 가실 것가	5. 흙덩이야
요 <sup>5</sup> 병애야 질긴 양 말라	6. 녹각같은 7. 들면
<sup>6</sup> 노각 꼴은 나 어쩔 <sup>7</sup> 들민	8. 가루가
흔 두번에 <sup>8</sup> 꺾롤이 난다	
어기야 더럼아 서두리 더럼	

< 秦聖麒 · p.153 - 302 >

註 16) 이 農夫를 밭 불리는 사람이라 하며 男女老少 區別없이 動員된다.

( 解 )

서두리 더럼아 서두리 더럼아  
 요런 날에 요 고무래 질이야  
 내 심정이 얼마나 상할가 보냐  
 요 흙덩이야 굳은 채 말아라  
 늑각과 같이 굳고 굳센 내 어깨를 들면  
 한 두번에 가루가 된다  
 어기야 더럼아 서두리 더럼

곰배란, 표준어로 “고무래”(丁)이다. 밭 농사에서 이 곰배질을 하는 시기는 보리(麥) 播種시기로서, 이 때가 되면 기후 관계로 흙이 굳어져 밭갈이를 하고나면 흙덩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흙덩이를 부수고 나서야 보리씨를 뿌리는데 이 작업은 비교적 같은 동작을 되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韻律에 맞추어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다.

( 따비질 소리 )

요 <sup>1</sup>태역이야 저 <sup>2</sup>때비야  
 혼 번을 <sup>3</sup>질르난  
<sup>4</sup>자단 <sup>5</sup>애기 일어나듯  
 우긋 우긋 일어난다

- 1 . 잔디야 2 . 잔디야
- 3 . 찌르니까
- 4 . 잠자던 5 . 아기

解)

요잔디야 저 잔디야  
한 번을 찌르니까  
잠자던 아기 일어나듯  
우긱우긱 일어난다

역이란, 표준어로 잔디(芝)이다. 이 잔디를 移植하기 위해서  
채로 캐어 내는 데 쓰이는 연모가 “따비”이다. 두 가닥짜  
포오크처럼 생겼는데 두 가닥의 포오크가 象牙처럼 굵고 휘어  
데 흙을 파고 들어가기 좋게 생긴 그 고장의 독특한 연모이  
이 연모로 삽질하듯 발로 밟아 누르면 잔디 흙으로 파고  
가 일구어 내는 것이다. 勿論, 힘을 주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속으로 수욱 찌르고 푹 재쳐 일구어 내는 모양을 “잠자던  
펼쩍 일어나듯”이라고 노래했다. 이는 音律에 의한 가락에  
“소리”가 아니라, 그 모습을 그린 自然發生的 “소리” 라  
다.

에서 말한 勤勞歌는 주로 男謠로서, 農事일 중에서도 힘을 써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남자들에게 알맞는 것이며 또 여자들은  
않는 노동들이다. 제주도의 여성들은 노동에 있어서 남자가  
일이라도 남자 못지 않게 해 내고, 또 男女의 區別없이 하  
것이 例事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勞動은 그 限界가  
하여 男女區別이 각각 있다. 그 하나가 이 “따비질”이다.

이 따비질에는 女子들은 손을 대지 않는다. 이 밖에도 「톱질 놀애」 「도치질 놀애」 「자귀질 놀애」 등 많이 있다. 이들은 농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노동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우선 농사에 관한 것을 좀더 연구해 보기로 한다.

<sup>1</sup> ( 마당질 노래 )

어여도 흥아

흥애야 더럼아

<sup>2</sup> 때려보자 때려보자

어느 것이 동산이냐

이 것이 동산<sup>3</sup>이여

요 동산을 때려보자

<sup>4</sup> 때림시민 <sup>5</sup> 굴축난다

<sup>6</sup> 훈착 <sup>7</sup> 가달 땅에 <sup>8</sup> 부치곡

훈착 <sup>9</sup> 종애 올라 <sup>10</sup> 감저

훈두 번올 <sup>11</sup> 때림시난

<sup>12</sup> 도깨 꺾이 불이 <sup>13</sup> 남저

1. 타작노래

2. 때려 보자

3. 이다

4. 때리고 있노라면 5. 줄어든다

6. 한쪽 7. 다리 8. 부치고

9. 다리 10. 가는구나

11. 때리고 있노라면

12. 도리께 13. 나는구나

( 解 )

어여도 흥아

흥애야 더럼마

때려보자 때려보자

어느 것이 동산이나  
 이것이 동산이다  
 요 동산을 때려보자  
 때리고 있노라면 (타작할 것이) 줄어든다.  
 한 쪽 다리는 땅에 붙이고  
 한 쪽 다리는 올라 가는구나  
 한두 번을 때리고 있으면  
 도리깨 끝에 불이 나는 구나

위는, 도리깨로 타작하는 모습과 作業의 興을 들을 수 있는 힘  
 찬 기운을 준다.

<마당질 노래>

요것도 <sup>1</sup> 브난 생곡이여	1. 보니까
<sup>2</sup> 올로 절로 <sup>3</sup> 뜨려나 보저	2. 일로절로      3. 때려나보자
너른 목에랑 <sup>4</sup> 편개 치듯	4. 번개 치듯
좁은 목에랑 <sup>5</sup> 벼락 치듯	5. 벼락치듯
요 동산을 <sup>6</sup> 헤싸나 보게	6. 헤뜨려나보자

(解)

요것도 보니 생곡이요  
 이리 저리 때려나 보자  
 너른 목에랑 번개 치듯  
 좁은 목에랑 벼락치듯  
 요 동산을 헐어 뜨려나 보자



< 마당질 소리 >

요 것도 <sup>1</sup>생곡이여  
<sup>2</sup>갈라지컨 <sup>3</sup>갈라지라  
<sup>4</sup>때려지컨 때려보자  
 요 동산을 때리자  
 한 번 <sup>5</sup>때령 열 방울씩  
 두 번 때령 백 방울씩  
<sup>6</sup>봉애 눈은 <sup>7</sup>부릅뜨고  
 주레 <sup>8</sup>배꼽 하늘 <sup>9</sup>보이면서  
<sup>10</sup>떨어지컨 떨어지라  
 갈라지컨 갈라지라  
 엎어지컨 엎어지라

1. 생곡이다
2. 자빠지려면      3. 자빠져라
4. 때려지거든
5. 때려서
6. 거적눈은      7. 크게뜨고
8. 배꼽      9. 보이면서
10. 떨어지려면

( 解 )

요것도 생곡이다.  
 자빠지려면 자빠져라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자  
 요동산을 때려보자  
 한 번 때려 열 방울 곡식 알맹이  
 두 번 때려 백 방울 곡식 알맹이  
 큰 눈은 부릅뜨고  
 주레 배꼽 하늘에 보이면서  
 떨어지려거든 떨어져라

넘어지려거든 넘어져라  
엎어지려거든 엎어져라.

도깨질은 표준어로 “도리깨질”이다. 卽, 타작하는 作業을 말한다. 濟州島에서의 打作이라면 보리 타작과 조타작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콩, 팥, 녹두등의 타작이 있기는 하나, 그 規模가 적다. “마당질” 또는 “도리깨질”로 불리우는 이 作業에서의 노래는 힘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韻律을 생각한다면 4. 4조의 主調를 이루고 있다. 다른 민요의 가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힘주는 대목의 “이여도 산아” “어기엇차” 등과 같이 “어야도 흥아”라는 후렴구는 우리 전통적 가락이기도 하다.

勤勞謠中에도 男謠와 女謠, 그리고 男女謠로 分類할 수 있는데, 앞에서 든 “따비질 소리” “톱질 소리” “자귀질 소리” “도치 소리” 들은 힘을 써야 하는 것인바 男謠에 속하며 “발 불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들은 男女가 다 할 수 있는 노동인 바 男女 共同謠이다. 그리고, 濟州島에서 배농을 수 없는 “海女 노래” 가 있는데, 이는 女謠로서 그 가짓수도 많다.

濟州島는 農土가 부족하고, 土質이 薄土인데다가 흉년이 자주들어, 매우 타격을 받았다.

「顯宗十一年 秋八月 大風雨 海水灑 百穀枯黃 飢殍相枕 牧使盧錠請  
粟萬餘石 以賑之 “顯宗 11年 가을 8월에 큰 비 바람과, 海水  
로 온갖 곡식이 말라 죽고 百姓들은 굶주리고, 부어 죽는 자가 많

았으므로 牧使, 盧錠이 粟萬餘石을 請하여다가 賑恤했다.]<sup>17)</sup>

따라서, 濟州島에서는 農作物만으로는 生計를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 急務로 男女 區別없이 活動해야 함은 勿論, 특히 婦女女子들은 알몸으로 바다에 뛰어 들어 자맥질로 海底를 누비는, 潛水 作業을 하게 되었다.

「生鯁之捉亦如之 如是採取 應官家所徵之役 以其 所餘典買衣食 其爲生理之艱苦已不足不足言 而苦有不廉之慾生貪汚之心則 巧作名目 徵索無等 一年所業不足以應其役 況官門輪納之苦 吏胥舞奸之幣 罔有紀極 又何望其衣食之資乎 因是之故 苦植貪育則 所謂潛女輩 未有免丐乞者云 “생복을 잡아다가 관가 소징의 役に 應하고, 그 나머지는 팔아서 衣食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이 艱苦 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엄치없는 育員이 있어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名目を 교묘히 만들어 정색하기를 수없이 하므로 一年間의 소업으로는, 그 役に 응하기가 부족하다. 하물며, 관문에 輪納의 고통과 吏胥의 舞奸이 폐가 끝이 없으니, 또 무엇으로써 의식의 의식의 資를 바라리오. 이런 까닭에, 萬一 貪官이나 만나면, 소위, 沈女輩는 거지가 되어, 얻어 먹으러 돌아 다닌다.]<sup>18)</sup>

---

註 17) 金錫翼, 耽羅文獻集, 「耽羅紀年」, 濟州道教育委員會, p.397, p.403.

18) 李 建, 耽羅文獻集, 「濟州風土記」, 濟州道教育委員會, p.198.

< 海女노래 >

날 <sup>1</sup>드랑 가 <sup>2</sup>도라  
 날 드랑 가 도라  
<sup>3</sup>날 드랑 갈 <sup>4</sup>막심  
 열 백번 <sup>5</sup>시여도  
 본 가장 <sup>6</sup>성외에  
 못 <sup>7</sup>드랑 <sup>8</sup>가키여  
 가기랑 <sup>9</sup>가지마는  
 정이랑 <sup>10</sup>두고 가라

1. 데리고      2. 달라  
 3. 너를      4. 마음  
 5. 있어도  
 6. 성화에  
 7. 데리고      8. 가겠구나  
 9. 가지마는  
 10. 두고

( 解 )

날 데리고 가 주게  
 날 데리고 가 주게  
 너를 데리고 갈 마음  
 열 백 번 있어도  
 본 가장의 성화에  
 못 데리고 가겠구나  
 가기는 가지 마는  
 정이랑은 두고 가마

海女를 濟州島에서는 潛女라고 한다. 낭만이 펼쳐지는, 滄海에서 바닷속으로 자막질 해서 하는, 海女の 作業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낭만일 수도 없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作業임에 틀림없

다. 여름철에는 그런대로, 물속에 들어가기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겨울에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기란 예사 일은 아니다. 겨울에도, 바닷속에는 섭시 2도 정도의 수온이 유지되므로 作業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위하여 물가로 나오면 장작에 불을 지피고, 불을 쬐며 이야기 꽃이 핀다. 그때, 自然發生的으로 터져 나오는 노래가 恨과 녀두리이다. 그래서, 나를 데려 가주길 바라는 것은 海女生活을 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다.

님아 님아 정든 님아  
<sup>1</sup>해천영업 안서길 님  
 날 <sup>2</sup>드랑 가 <sup>3</sup>줍서  
 날 <sup>4</sup>모삼 가 줍서  
<sup>5</sup>천초 <sup>6</sup>도박 <sup>7</sup>내사 <sup>8</sup>말다  
<sup>9</sup>줍북 <sup>10</sup>구쟁기 내사 말다  
 천리라도 님 <sup>11</sup>따랑 <sup>12</sup>가곡  
 만리라도 님 따랑 가곡  
<sup>13</sup>예주의 <sup>14</sup>종부는 님  
<sup>15</sup>따른 종부

- 1. 바다에서의 일
- 2. 데리고 3. 주십시오
- 4. 모셔서
- 5. 우무 6. 앵초 7. 나는야
- 8. 싫다.
- 9. 전복 10. 소라
- 11. 따라서 12. 가고
- 13. 여자의 14. 從夫는
- 15. 따른

(解)

임아 임아 정든 님아  
 바다 작업 안시킬 님  
 나를 데려 가 주시오  
 나를 모셔 가 주십시오  
 우무 앵초 모두 나는 싫어  
 진복 소라 나는야 싫어  
 천 리라도 임 따라 가고  
 만 리라도 임 따라 가고  
 여자의 종부는  
 임따르는 종부이다.

海女인 處女들이 시집을 가고 싶다. 그러나, 날 데려갈 남군은  
 바다에서 作業을 하지 않을 곳으로 데려가길 바란다. 해초도 싫  
 고, 진복도, 소라도 다 싫으니 바닷일이 없는 곳이면, 만리라도 따  
 라 가고 싶다고 한다.

네 년이 잘 날난  
 내 <sup>1</sup>요디를 <sup>2</sup>오라선가  
 님이 <sup>3</sup>이신 <sup>4</sup>고단이탄  
 내 요디를 오라선가  
 산천이 <sup>5</sup>고운 더랑  
 산천 구경 오라선가

- |            |          |
|------------|----------|
| 1. 여기를     | 2. 왔는가   |
| 3. 있는      | 4. 고장이라서 |
| 5. 좋은 곳이어서 |          |

곰곰히 생각하난  
 6. 깊은 한숨 나는 구나  
 한숨은 7. 쉬고서는  
 동남풍이 8. 되어 불고  
 눈물은 9. 떨어지고서  
 한강수가 되었구나

6. 깊은  
 7. 쉬고서는  
 8. 되어 불고  
 9. 떨어지고서

< 秦聖麒 · pp. 123 - 124 - 230 >

( 解 )

네 년이 잘 났으니  
 내 여기를 왔던가  
 임이 계신 고장이라서  
 내가 여길 왔단 말인가  
 山川이 좋은 곳이라서  
 산천 구경 왔단 말인가  
 곰곰히 생각하니  
 깊은 한숨 나는구나  
 한숨을 쉬고서는  
 동남풍이 되어 불고  
 눈물은 지고서는  
 한강수가 되었구나

生活苦를 말하기 앞서, 이 作業이 고됨을 원망하는 노래이다. 내

가 이곳에 왜 왔는가? 山川 경계 찾아 온 것도 아니며, 님이 좋아 온 것도 아닌 바 눈물이 나는 구나!

< 潛女 노래 >

<sup>1</sup>답는 <sup>2</sup>조숙 <sup>3</sup>버려 두고

늙은 <sup>4</sup>부미 버려 두고

<sup>5</sup>돈일러라 돈일러라

<sup>6</sup>원진 것이 돈일러라

호분 두 푼 <sup>7</sup>매우던 돈을

우리 님의 <sup>8</sup>개와 쪽으로

1. 따르는 2. 자식 3. 버려

4. 부모

5. 돈이더라

6. 소원이던 것이

7. 모우던

8. 호주머니

< 구좌면 동복리, 윤 태숙 (여 · 34), 1979. >

( 解 )

따르는 자식 버려 두고

늙은 부모 버려두고

돈이 소원이더라

원하는 것이 돈일러라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우리 임은 주머니 속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자식도 부모도 버려두고 海女作業을 하며 모은 돈을, 우리 임은 모두 빼앗아 버렸다.

濟州島에서의, 색다른 風俗 하나가, 夫婦中에서 男子는, 놀고 먹는



가 하면, 女子는 勞動等, 많은 勞動을 한다는 點이다. 윗 노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열심히 海女 作業으로 돈을 모아 가는데, 남편은 모조리 찾아하고 만다는 것이다. 濟州島를 女多의 나라라고 한다. 人口調査 統計上으로 女性이 많다고 하거니와, 그보다도, 男性보다 女性의 社會的 活動面이 많기 때문에, 女性이 유달리 눈에 띄인다. 거리를 가거나, 市場이나, 耕作, 除草等 男性이 할 일들도, 이곳에서는 女性들이 많이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女多國으로 통하게 되었다.<sup>19)</sup>

이곳에는 生活器具가 陸地部와 다른 것이 많다. 물을 길는 “허벅”을 비롯하여 “애깃구덕” 그밖에도 바구니등, 색다른 것이 많다. 그 中에서도 海女들이 사용하는 漁撈器具들이 있다. 바다에 띄워 헤엄치는 “태혹”이며, 各種 그물, 水中眼鏡, ‘낫’, ‘갈코리’, ‘潛女服’ 등이 있다. 素朴하고 原始的이나, 모두 科學的인 根據를 가지고 있으며, 生産道具인만큼 소중히 가꾸어지고 있다.

濟州道에는 아직도 “潛女 노래〈물길 노래〉”, “밭볼리는 노래〈밭밟는 노래〉”, “나무 깨는 노래” “따비질 노래〈잔디 뜨는 노래〉”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元來에는 모든 作業時에 民謠를 불렀던 것이나, 어느 사이에, 노래가 생활에서 離脫되어 無味乾燥한 것이 되고 말았다. 作業時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作業의 疲勞를 덜 뿐 아니라, 作業을 즐겁게 遂行할 수 있는

---

註 19) 任東權, 韓國民俗學論攻, 서울; 集文堂, 1982, pp.278-279.

氣分을 돕는 것인데, 現代는 작업에서 노래를 喪失하므로 作業에서 오는, 피로의 압력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밭밧기, 따버질, 나무깨기, 톱질등을 할 때에는 부르는 노래가 僅少하나마 남아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傳承文化의 殘存形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ㄹ래 ㄹ는 소리 〉

요	<sup>1</sup> ㄹ래에	<sup>2</sup> 윤유리	목이여
밀리	거든	돌아나	오라
<sup>3</sup> 노각	끝은	나	어깨 <sup>4</sup> 들민
<sup>5</sup> 석은	<sup>6</sup> 반도	<sup>7</sup> 무외듯	한다.

- |           |          |       |
|-----------|----------|-------|
| 1. 맷돌이여   | 2. 윤유리나무 |       |
| 3. 녹각과 같이 | 힘센       | 4. 들면 |
| 5. 썬는     | 6. 안반도   |       |
| 7. 파헤치듯   |          |       |

〈 조천면 조천리, 한 석희 (여·52), 1965.〉

( 解 )

요 맷돌이여 윤유리 나무여  
 밀거든 돌아나 오라  
 녹가같은 내 어깨를 들면  
 썬는 안반도 파헤치듯 한다.

ㄹ래는 맷돌이다 맷돌을 돌리려면 힘이 필은 하다. 그래서 “나는 힘이 세다”는 가장 기본적인 맷돌 노래이다.

<sup>1</sup>이여도 ㅎ라 이여도 ㅎ라  
 이여 이여 이여도 ㅎ라  
<sup>2</sup>이엿 소리엔 나 눈물 난다  
 이엿 <sup>3</sup>말랑 <sup>4</sup>말앙근 가라  
<sup>5</sup>강남을 가퀸 <sup>6</sup>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sup>7</sup>반이엿 <sup>8</sup>해라

- 1. 상상의 섬
- 2. 이여란
- 3. 말은      4. 말고서
- 4. 中國을 말함      5. 지명
- 7. 절반이라고      8. 하더라

(解)

이여도 하라 이여도 하라  
 이여 이여 이여도 하라  
 이여라는 소리에 는 내 눈물의 난다  
 이여라는 말이랑은 하지 말고 가라  
 강남을 가는데는 해남을 봐라  
 이여도가 반이라고 하더라.

대체로, 힘을 쓰는 勞動에는 “이여도 하라” 혹은 “이여도 산아”라는 후렴구를 붙인다. 이 “이여도”란 濟州島의 南方에 있는 “섬”이라고들 하나, 이는 상상의 섬이요, 동경의 섬이기도 하다. 그래서, 江南·海南을 가는데는 이여도가 절반이라 하니, 절반도 갈 수 없는 곳이므로, 아주 갈 수 없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이여도란 소리에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sup>1</sup>〈 ㄹ래 ㄹ는 소리 〉

ㅎ룻 밤에 밀 닷말 <sup>2</sup>꼴안  
<sup>3</sup>죄역 <sup>4</sup>삼매 <sup>5</sup>다솥을 <sup>6</sup>주난  
<sup>7</sup>씨아방 둘 <sup>8</sup>안내곡  
<sup>9</sup>씨어멍 둘 <sup>10</sup>안내여 부난  
 우리 둘은 하나로 구나

- 1. 멧돌 가는 노래
- 2. 갈아내고
- 3. 떡의이름      4. 떡이름
- 5. 다섯개      6. 주니까
- 7. 시아버지      8. 드리고
- 9. 시어머니      10. 드리고 나니

〈 조천면 조천리 · 한 석화 (여 · 52) , 1965. 〉

( 解 )

하룻 밤에 밀 다섯말을 갈아내니  
 죄역떡 삼매떡 다섯 개를 주니  
 시아버지께 두 개 드리고  
 시어머니께 둘을 드리고 나니  
 우리 두 사람은 하나 뿐이로구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부모를 공양하고, 남은 떡을 나누어 먹는 夫婦의 모습과, 품삯으로 떡을 얻어 오는 風俗도 엿볼 수 있다.

〈 방애 놀래 : 방아 노래 〉

강남서도 <sup>1</sup>날아온 새야  
<sup>2</sup>일본서도 날아온 새야  
<sup>3</sup>오늘가져 <sup>4</sup>뉘 <sup>5</sup>가져 혼게

- 1. 날아온
- 2. 일본에서도
- 3. 오늘 갈가      4. 내일
- 5. 갈가한게

청대 입회	<sup>6</sup> 촌 이슬	<sup>7</sup> 내런	6. 찬	7. 내려서
<sup>8</sup> 날개	<sup>9</sup> 젖어	못	<sup>10</sup> 날아	8. 날개
				9. 젖어
				10. 날고 있더라

〈金榮敦·濟州島民謠에 있어서의 비유법수사, 국어국문학·  
p.21~22.〉

(解)

강남서 날아 온 새여  
일본에서 날아 온 새여  
오늘 갈까 내일 갈까 하면서도  
청대 앞의 찬 이슬이 내려  
날개가 젖어서 못 날겠도다.

江南에서 또는 日本에서 날아온 새란, 女子가 시집 온 것을 비유한 것으로 이 새는 청대 앞에 찬 이슬로 날개가 젖어 못 날아가듯, 시집살이에 억매인 自身은 마음대로 친정에 가지 못한, 안타가움을 노래했다. 그리는 꿈을, 모두 이룰 수 없는 自身의 身勢를, 흡사 “새”에 비유했다.

〈방애 놀애 : 방아 노래〉

<sup>1</sup> 드러	애기	피	<sup>2</sup> 방애	<sup>3</sup> 짐은	1. 地名(조천면교래리)
<sup>4</sup> 새	발티	울	튀리	박듯	2. 방아
					3. 찢기는
해	밴	애기	조	방애	4. 띠(茅)
				짐은	

<sup>5</sup>행길치매 춤추듯 <sup>6</sup>힙져

5. 행주치마 6. 하는구나

(解)

橋來里 애기 피 곡식 방아를 찧는 것은

띠발에 울타리 박듯

해변 애기 조(粟)방아 찧는 것은

행주 치마 춤추듯 하는구나

방아를 찧는 모습을 노래했다. “두리”라 하면 濟州島에서 山間 部落으로서, “두리” “송당”을 시골 중에서도 두메 산골로 치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의 방아 찧는 모습은, 노련하고 능숙한 데 비하여, 海邊에 사는 애기 방아 찧는 모습은, 서툴기 짝이 없다는 말이다.

<sup>1</sup>높지 <sup>2</sup>들렁 <sup>3</sup>느적이 <sup>4</sup>농왕

새나 동동 <sup>5</sup>맞아나지라

크게 진들 날 <sup>6</sup>하영 <sup>7</sup>주멍

<sup>8</sup>족게 진들 날 <sup>9</sup>증영 <sup>10</sup>주랴

1. 높이 2. 들어서

3. 낮게 4. 농고서

5. 맞아지어라

6. 많이 7. 주머

8. 자그맣게 9. 적게

10. 출가

(解)

높이 들고 나적이 놓고서  
 사이나 동동 맞아 지어라  
 크게 쥘들 나에게 많이 줄 것이며  
 적게 쥘들 나에게 적게 주랴

방아를 쥘는데 공이 사이에서 알맞게 맞아, 순조롭게 쥘자는 뜻이다. 크게 쥘거나, 적게 쥘거나, 그 결과는 다를 바 없다.

<sup>1</sup>방에 <sup>2</sup>지영 <sup>3</sup>역들젠 흥난  
 치맛짜락 <sup>4</sup>전주리 난다  
<sup>5</sup>그래 그랑 역들젠 흥난  
 적삼배알 전주리 난다  
 방에 짓 툇 물 지듯 흥민  
<sup>6</sup>사념 못 살 <sup>7</sup>지서명 <sup>8</sup>었다

1. 방아 2. 쥘어서  
 3. 役 (일하자고)  
 4. 갈기갈기 찢어짐  
 5. 맷돌갈아서  
 6. 살림 7. 女子 8. 없다

(解)

방아를 쥘고 일하려 하니  
 치맛짜락 닳고 찢긴다  
 맷돌을 갈아서 일하려 하니  
 적삼소매가 닳고 닳아  
 방아 쥘듯 물 긴듯 하면  
 女子 살림 못살리 없다.

방아를 쪼는 일이나, 맷돌을 가는 일이나, 모두 힘든 일로서 옷  
마저 닳고 찢긴다는 뜻으로 이만큼 힘들여 일한다면, 못살 사람 없  
으며 다른 일은 비할 바가 못된다.

<sup>1</sup>방앳귀광 <sup>2</sup>빗긱은 <sup>3</sup>긱당  
<sup>4</sup>심영 사민 <sup>5</sup>설룬말 혼다  
나 말 종종 들을이 <sup>6</sup>시민  
단곰 단곰 다 일러 <sup>7</sup>두영  
백탄 불에 얼음인 듯이  
<sup>8</sup>스르릉이 내 녹아 <sup>9</sup>감저

1. 절구공이와 2. 비는  
3. 같아서  
4. 잡고서면 5. 서러운말 한다  
6. 있으면  
7. 두고서  
8. 사르르 9. 가는구나

(解)

방아 공이와 비와는 같아서  
손에 잡고 서면 서러운 푸념을 하게 마련  
내 말을 들어 줄 이 있다면  
단곰 단곰 다 일러 두고서  
석탄 백탄 얼음 녹듯이  
사르르 다 녹아 가는구나

서러운 人生 살이에서 푸념과 하소연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 더우기, 女子로 태어나서 시집살이의 고된 생활은 참고 지내  
야만 한다. 혹, 푸념을 토로하고 싶어도 털어 놓을 相對가 없다.  
그래서, 방아를 쪼거나, 비를 잡고 쓰레질을 할때, 장단 맞추어 노



래처럼 부르게 된다. 그것이 身勢打令이요, 방아 노래이다.

<sup>1</sup>삼대 <sup>2</sup>종수 <sup>3</sup>하던 <sup>3</sup>종은  
 새 <sup>4</sup>대 나서 삼년을 <sup>5</sup>사난  
<sup>6</sup>먹던 밥을 선반에 놓고  
<sup>7</sup>입던 옷을 <sup>8</sup>햇대에 <sup>9</sup>거난  
 보리 방애 물 섞어 <sup>10</sup>노난  
<sup>11</sup>여히 알로 <sup>12</sup>산 도망혼다  
 유월 방애 힘겨우더라  
 나일 <sup>13</sup>도월 <sup>14</sup>하나이 <sup>15</sup>엇다

- 1. 三代 2. 從事 3. 일꾼은
- 4. 대는 5. 사니까
- 6. 먹던
- 7. 입던 8. 햇대 9. 거니까
- 10. 놓으니
- 11. 처마 밑으로 12. 서서
- 13. 도와줄 14. 하나도
- 15. 없다

( 解 )

三代 從事 하던 머슴은  
 새 代에는 나서 三년을 사니까  
 먹던 밥을 선반에 놓고  
 입던 옷을 햇대에 걸어  
 보리 방아를 찧려고 물에 담그니  
 처마 밑으로 도망쳐 버린다  
 六月 방아 힘겨우더라  
 나의 일 도울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머슴도 三代를 사니, 꽤만 늘어서 힘겨운 방아 찧기는 피해, 도망한다는 뜻이다. 역시 방아찧기란, 힘겨운 노동인듯 싶다. 착실히 건조시킨 보리알에 방아를 찧기 직전 물에 버무려 찧는데, 조

금만 時間이 經過해도 방아를 찧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主人은 혼자라도 방아를 찧어 내어야 된다. 고된 生活의 連續이다.

<sup>1</sup>삼시 <sup>2</sup>죽장 <sup>3</sup>이여도 <sup>4</sup>헝  
지을 방엔 다 지여서도  
<sup>4</sup>일품삼으론 날 아니 <sup>5</sup>주엄  
죽은 보리 <sup>6</sup>말 닳되더라

1. 三時 2. 계속 3. “이여도” 노래 하며  
4. 일품삼으론 5. 주고서  
6. 말닷되 주더라

(解)

三時 쉬지 않고 계속 이여도 노래 하며  
찧는 방아는 다 찧었어도  
일 한 삼으론 나에게 주지 않고서  
죽은 보리 한 말 다섯 되 주더라

고되고 고된 방아를 찧었으나 품삼으로 주는 것은 죽은 보리 한 말 다섯 되뿐이라고, 고된 일의 보수가 적다는 뜻을 하소연 한다.

이여도 <sup>1</sup>방애 이여도 방애  
요 <sup>2</sup>짓 <sup>3</sup>방담 <sup>4</sup>주손 각시로  
<sup>5</sup>상 아들에 <sup>6</sup>매누리 <sup>7</sup>들엉  
<sup>8</sup>유기제물 날 아니 준들

1. 방아  
2. 집 3. 친족 4. 주손  
( 맞손주 )  
5. 큰아들 6. 며느리  
7. 들어서  
8. 簾器財物

9방앗비사 날 아니 주랴  
 10가지전답 날 아니 준들  
 방앗비사 날 아니 주랴

9. 방아짚는데 쓰는 비야  
 10. 家財田畓

( 解 )

이여도 방아! 이여도 방아!  
 이 집 가문 주손 각시로  
 큰 아들의 며느리로 시집와서  
 鑿器 財物이야 내게 아니 준들  
 방앗간에서 쓰는 비야 아니 주겠는가  
 家財 田畓이야 아니 준들  
 방앗간 비야 아니 주겠는가

방아를 짚는 것과 같은, 고되고 어려운 일을 해 내는 맞머느리  
 에게 비 한자루야 아니 주겠는가? 이는 힘들여 일한 공치사이  
 기도 하다.

1지을 방앤 2혹안에 들고  
 부를 3놀랜 4수정이 엇다  
 5어느제랑 나 6입잇 놀애  
 다 7불림근 8지어나 불코

1. 짚을 2. 방아가운뎃돌  
 3. 노래는 4. 수효가 없다  
 5. 어느때 6. 입에 잇는  
 노래  
 7. 불리서 8. 짚어나 불가

(解)

짙을 방아는 꿈이 안에 들고  
부를 노래는 무수히 많다  
어느 때나 내 입에 있는 노래  
모두 다 불러 쥘어나 불가

방앗 노래는 흥과 힘을 돋우는 구실도 하지만, 혼잣말처럼 身勢 打숨을 할 구실도 된다. 自古로, 설움이 많은 女人네는 설어운 自身の 自勢를 暴露할 때는 방아를 쥘 때나, 맷돌을 돌릴 때, 또는, 애기를 등에 없거나, 잠재울 때 노래처럼, 부르기도 한다. 위의 무수한 노래란 自身の 身勢를 호소할 설어운 노래일 것이다.

이여도 방아 <sup>1</sup>고들배 <sup>2</sup>지영  
<sup>3</sup>저녁이나 <sup>4</sup>밝은 제 <sup>5</sup>하리  
본디 저녁 <sup>5</sup>어두군 집에  
<sup>6</sup>오늘이엿 밝은 제 <sup>7</sup>하리

1. 부지런히 2. 쥘고서  
3. 저녁밥 4. 밝은(날이)때  
5. 어둡게 먹는 집에  
6. 오늘이라고 7. 하겠는가

(解)

이여도 방아! 부지런히 쥘고서  
저녁 밥이나 어둡기 전에 지어라  
(그러나)본디 저녁을 늦게 먹는 집에  
오늘이라고 밝은 때 짓겠는가.

島民들의 생활이 그렇지만, 유득, 일에 쫓기고 바쁜 每日의 生活

을 나타낸 노래이다. 일을 마치고 나면 날은 저물고, 저녁을 먹을 때는, 이미 밤이 된다. 그래서, 늘 어두어서 먹는 집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늦어야 일을 끝마친다. 고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다.

濟州島에서의 食生活은 쌀의 不足으로 雜穀을 많이 먹고 있다. 白米를 陸地에서 실어오는 이야기가 耽羅謠에도 나오거니와, 特別한 경우와 富裕한 가정이 아니면 白米飯을 먹지 못하며, 찬으로는 海産物이 食卓을 裝飾한다.<sup>20)</sup> 그리고, 主食이 되는 雜穀을 整米하는 데는 방아에 依存하는데 이때 찞는 方法으로 방아의 종류는 많다. 陸地部에서의 방아 종류는 “물레방아” “물방아” “드달방아” “연자방아” “절구방아” 등이 있는데 本島에는 “물방아” “드달방아”는 없고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면 “연자방아” <물고랑>가 있고, 그밖의 소규모가 작은 방아로는 “흑방아” “ㄱ래” <메돌방아> 등이 있다. 이들은 陸地部の 것과 비슷하나 그 使用方法이나 모양이 약간 달라서 이를 쓰는데 색다른 風俗이 생기게 되었다.

연자방아의 경우도, 陸地部の 연자방아는 牛馬를 驅使하여 끌어돌면서 방아를 찞는데, 本島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밀고, 끌며 돌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 動員되는 人員은 3名 乃至 6名정도인데, 이웃끼리, 또는, 가족이 총동원하게 된다. 人員이 여러 사람이므로 作業의 재미도 있지만, 이 때 부르는 노래도 흥을 높인다. 그

---

註 20) 任東權, 韓國民俗學論考, 서울; 集文堂, 1982. p.279.

리고, 흑방아의 경우, 육지부의 것은 돌로 만든 것이거나, 또는 통나무를 파서 풍악의 “장구”처럼 된 것을 세워놓고, 공이로 쟁게 되어 있으나, 本島의 것은 방아 판이 直徑 2 m 정도 둥근 큰 판을 조각해 놓고, 그 中央部에는 直徑 30 cm 정도의 돌을 파서 만든 “방아혹”이란 것이 놓여 있다. 여기 곡식을 집어 넣고 절구로 쟁게 되는데, 이때 곡식이 튕겨 흩어지면서 이 절구통에 널리게 된다. 그러나, 이 곡식들은 멀리 튕겨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방아 판에 흩어지므로, 한 사람은 비로 이 흩어진 곡식을 쓸어 모은다. 이때 自然發生的으로 노래가 흘러 나오게 되는 바 이것이 바로 “방애 놀애”이다.

濟州島에는 맷돌 또한 색다르다. 本島의 맷돌을 “ㄱ래”라고 하는데, 모양은 같으나, 그 맷돌을 만든 돌이 독특하다. 그래서, 그 성능도 매우 좋아, 여러 用途와 目的으로 많이 利用된다. 各種穀物을 타고, 가는 機能은 말할 것도 없이, 성능이 좋지만, 특히, “메밀”을 타는 기구로서는 唯一한 性能을 지니고 있어, 여기서 탄, 메밀은 品質이 좋은 것으로 定評이 나 있다. 따라서, 이 메밀로 빻은 메밀 묵은 國內 唯一의 맛과 色을 지닌, 名物로 알려져 있다.

이 “ㄱ래”를 돌리 가는데는 한 사람이 돌리는게 보통이지만, 큰 일을 치를 때등, 음식을 정만할 때는 세 사람이 돌린다. 두 사람은 맷돌 자루를 대칭으로 잡아 돌리고, 한 사람은 그 사이에 끼일 수 없으므로 기계의 피스톤 비슷한 나무 자루로 밀고, 당기

면서 돌리게 된다. 이때 세 사람중에서 代表되는 한 사람이 곡식을 알맞게 집어 넣으며 主宰하는 바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ㄴ래 ㄴ는 소리” 卽 “맷돌 노래”이다.

이 內容은 여러가지고, 多樣해서 警世的, 自歎的, 締念的, 그 밖에도 여러 內容으로 불리워 진다.

다음으로, 婦女子, 특히 處女들이 하는 農閑期 副業으로 宕巾과 網巾뜨기가 있는데, 이때 노래가 또한 濟州島 民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망건노래 >

나 <sup>1</sup>망 건아 나 맹 건아  
<sup>2</sup>한 편에는 옷 <sup>3</sup>민은 맹 건  
한 편에는 밥 민은 맹 건  
<sup>4</sup>정이 <sup>5</sup>좁쌀 다 민은 맹 건  
<sup>6</sup>함덕 <sup>7</sup>집석 다 민은 맹 건  
<sup>8</sup>일천 시름 다 민은 맹 건

- 1. 망건아
- 2. 한 편에는 3. 민은, 의존한
- 4. 행정구역, 지명
- 5. 좁쌀 (粟)
- 6. 地名 7. 둔자리 (住居의 대유)
- 8. 모든 걱정

< 秦聖麒 · p.148 - 293 >

( 解 )

내 망건아 내 망건아  
한 편에는 옷을 의존한 망건

한 편에는 밥을 의존한 망건

정사에서 주식인 좁쌀을 의존한 망건

함덕 집방석 의존한 망건

모든 시름 다 잊을 수 있는 망건

망건 뜨기를 하면서 절로 흘러 나오는 노래는 婦女子들이 平素  
간직했던 身勞打습이 大部分이다. 동시에 生計의 方法으로도 삼는  
이 網巾뜨기는, 옷도, 집방석도, 밥도 다 의존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름을 다 잊을 수 있는 망건이라고 했다.

이 망건아 <sup>1</sup> 장 불 <sup>2</sup> 매 나라	1. 장날 2. 힘(맛)
흔 <sup>3</sup> 돌 <sup>4</sup> 죽장 <sup>5</sup> 시 <sup>6</sup> 백인 망건	3. 달 4. 내내 5. 시간
장 또 장 시 백인 망건	6. 박힌(박아 놓은)
<sup>7</sup> 요 망건아 요 망건아	7. 바늘이 잘 걸리는 모양
꼴막 꼴막 걸러나 지라	
<sup>8</sup> 매주기랑 입 <sup>9</sup> 넘어 가라.	8. 꾸리는 9. 넘어서

(解)

이 망건아 장 불 때 힘이 나 나라

한 달 내내 치박아 놓은 망건

여러 장이 지나도록 치박아 놓은 망건

요 망건아 이 망건아

마디 마디 바늘은 잘 넘어가고

총 꾸리는 잘 풀려 넘어 가라.



망건을 떠야 5일마다 서는 장날엔 가서 팔고 돈을 받아 온다.  
 그런데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 몇번 째의 장날이 지나가도록 완  
 성치 못한다. 그래서, 요 망건아 실은 잘 풀리고 바늘은 잘 넘  
 어가면서 일이나 잘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 탕건 노래 >

<sup>1</sup>어느제랑 <sup>2</sup>썩물 나건  
<sup>3</sup>남과같이 <sup>4</sup>맹근 <sup>5</sup>출영  
 거리 노상 <sup>6</sup>광돌 <sup>7</sup>우티  
 높이 <sup>8</sup>앉앙그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sup>9</sup>수정이나 세여 보리  
 맹근 <sup>10</sup>출리난 탕근 생각  
 탕근 출리난 <sup>11</sup>더사 높은  
 갓 생각 나더라

1. 어느때가 되면
2. 스물살되어
3. 남과같이 4. 망건
5. 차려서
6. 관 높은돌 7. 위에
8. 앉아서
9. 수효나
10. 차리니 (구비하니)
11. 더욱

( 解 )

기다려 지는 스무 살이 되어  
 남과 같이 網巾을 구비하고  
 거리 路上 높은 臺위에서  
 높이 올라 앉아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모두 세며 바라 보리  
망건 차리니 탕건 생각  
탕건 차리니 갓쓸 생각이 나더라.

宕巾과 網巾, 그리고 갓을 만드는 材料는 말총(말꼬리 털)이다. 濟州島가 조랑말의 本鄉인만큼 말총도 풍부히 生産되며 陸地部로 輸出도 했다. 따라서, 탕건, 망건의 製作 生産도 으뜸이었다.

이 때 탕건, 망건을 製作하는 場所로서는 洞里的 넓은 房이나, 또는 婦女들만이 居處하는 집에서, 場所를 提供하면, 그 洞里 婦女子들은 各自 道具와 材料를 가지고 그 場所에서 集團 作業을 한다. 이것은 共同所有이거나 어느 한 사람의 主宰下에 進行되는 作業이 아니라, 徹底히 個人이, 各自의 技術에 依해, 各個人 所有의 物品이 生産되는 것이다. 勿論, 製品된 物件의 販賣도 各自의 責任과 各己 意思에 依해 賣却된다. 말하자면, 製作 作業을 하는 場所만 集團的으로 行해지며, 그밖에는, 철저히 個人的이다. 바로 이 場所가 民謠인 “탕건노래” “망건노래”의 廣場이다.

이 宕巾노래는, 그 宕巾과 網巾과의 連關性있는 內容의 노래가 大部分이지만, 그밖에 다른, 그 때에 流行하는 流行歌를 비롯한 各種 노래가 불리어 진다. 노래 외에도 對話의 廣場으로서, 消息이나 정보의 交換場所이기도 하다.

韓國 民謠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勞動謠는 勞動 및 農夫 禮讚이 主題로 되어 있다. 이는 勿論 生業인 農業 勞動의 不可避性

을 宿命的으로 받아들인 點에서 나타난 현상이긴 하나, 한편 농업 노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지런히 농사에 참여한 勤勉性의 一端을 보여준 結果이기도 하다. 韓國의 농민들은 다 그렇겠지만, 특히 濟州島의 農民들은 동이틀 때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 온다. 婦女子의 경우 저녁밥도 지어야 하고, 또 내일의 준비도 해 두어야 한다. 농사철이 끝난 겨울에는 바다에 나가 “둔북”이나 “곡래” <海草>를 건져야, 밭의 거름으로 쓰며, 또 들에 가서 말똥(馬糞)도 주어 도아야 煖房用 燃料로 쓴다. 名節外에는 公休日이라고는 없고 勤務時間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좁은 땅에서 所出을 많이 내려면, 잠자는 時間까지 줄여야 했고, 이같이 어느 生業보다도 항상 부지런 해야만 했던 島民의 生活은 勤勉性을 낳게 했던 것이다.

### ( 3 ) 自 歎

宿命性은 주로 自歎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自歎은 諦念과 아울러, 韓民族性의 根底를 이루고 있다. 傳承文學의 主流인 古代小說이나 民謠속에는 人生의 奇薄한 八字를 身勢 恨歎하는 要素가 많으며, 결국 그것을 拒逆치 못하고 肯定하는, 先天的인 宿命觀에서 오는 것이다.

오랜 동안 物質的으로 窮乏한 살림과 끊임없는 外敵의 侵寇, 그리고 制度上으로 나타나는 君主, 兩班, 支配階級の 酷政은 그들의 生活을 餘地없이 途炭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그런 속에서도, 民衆들

은 革命的 舉事를 이룬 例가 드물다. 이것은 모든 事態를 宿命的으로 解釋하고, 도리혀 順從의 美德을 발휘했던 것이다.<sup>21)</sup>

濟州島 民謠에서 自歎의 노래는 주로 女謠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니, 濟州島의 옛날 아낙네들은 그 지나친 道德律에 매어 있으면서 女必從夫의 觀念이 철저했고, 生活苦를 이겨 나가는데 비관속에서도 강인한 生活力을 가지고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 自歎歌에서는 濟州島 住民, 特히 婦女子들의 生活相과 時代的 反映을 나타낸 것이라 볼 때 그 價値가 높다 할 것이다.

<시집 살이 노래>

<sup>1</sup>씨 녀더래 <sup>2</sup>감이엿 흥건  
<sup>3</sup>재미만이 <sup>4</sup>네기지 말라  
산도 <sup>5</sup>설푼 물도 <sup>6</sup>설엿  
귀양 아니난 <sup>7</sup>감이엔 <sup>8</sup>흥주

1. 시집으로 2. 간다는 것을  
3. 재미있는 것으로  
4. 여기지 말라  
5. 서툰고 6. 서툰어서  
7. 간다고 8. 하지

(解)

시집을 간다는 것을  
재미로만 여기지 말라  
산도 살고 물도 서먹서먹하니  
귀양살이가 아니니 가는 것이라.

---

註 21)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서울; 二友出版社. 1980. p.200.

나이가 들면 시집가고 장가를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곳에서 시집살이란 얼마나 고된 것인가? 그래서, 시집으로 간다는 것을 재미 있어 하는 일이라 여기지 말라 물도 서먹서먹하고 산도 서툰 고장에 가는 것이니, 그 고된 삶이란 말할 수 없 크다. 귀양살이가 아니니 가는 것이 시집이다. 말하자면, 외로운 異域이자, 苦域인 곳이 바로 시집이라 했으니, 이처럼 괴로운 시집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시집살이 측면을 살펴 보기로 하자.

< 시집 살이 노래 >

<sup>1</sup>씨녀 삶이 <sup>2</sup>종안디 굿언디  
<sup>3</sup>대 죽낭게 외지등에  
 거적문에 <sup>4</sup>낭돌처귀에  
<sup>5</sup>벨 보는 <sup>6</sup>막살이에  
<sup>7</sup>양작쟁이 <sup>8</sup>정꺾래에  
 벌적호는 놀래에  
<sup>9</sup>달음 뜻는 족박에  
<sup>10</sup>중돔은 솟에  
<sup>11</sup>들세 <sup>12</sup>엇인 서방님에  
<sup>13</sup>들창 큰 씨아방에  
 암퇘 님은 씨어멍에  
 불등판 님은 <sup>14</sup>씨아지방에  
<sup>15</sup>노일 저대 님은 씨누이에

1. 시집 2. 종더냐 굿더냐  
 3. 수숫대 4. 나무 돌조개  
 5. 벌 6. 오막살이에  
 7. 소래내어우는  
 8. 멧돌  
 9. 달음 단는  
 10. 녹쓴  
 11. 염치 12. 없는  
 13. 食事量  
 14. 시아주버니  
 15. 요망스럽다는 전설의 인물

죽겐 <sup>16</sup>항난 청춘이고  
 살겐 항난 고생이여

16. 하니

(解)

시집에서 사는 것이 좋더냐 곳더냐  
 수숫대 나무인 외기둥  
 거적문에 나무 들조개라  
 별 보는 오막사리에  
 크게 소리 나는 멧돌에  
 벌쩍 큰 소리 내는 호령과  
 일은 바빠서 축박들고 달려 다니다시피하고  
 술은 녹이 썰고  
 염치 없는 서방  
 그리고, 많이 먹는 시아버지  
 암닭 닭은 시어머니  
 불등판 닭은 시아주버니와  
 요망스럽기 짝이 없는 시누이와...  
 그래서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살자 하니 고생이라.

시집가서 사는 살림살이가 좋더냐? 곳더냐?고 묻는 말로 시작하여, 먼저 시집의 모양부터 말했다. 수숫대로 지은 외기둥집처럼 엉성하고 초라하게 지은 집에다가, 문은 거적으로 덮고 돌조

개 대신 나무로 동여 맨, 너무도 가난하고 엉성한 집이다. 그뿐이 아니라, 지붕은 별이 보이고, 바람이라도 불거나 집안 사람들이 돌아 다닐 때는 집채가 흔들려 삐걱거리는 집 …… 이런 집이라면 茅屋을 연상할 수 있으며 움막을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가난속에서 사는 살림살이는 어떠한가? 일에 쫓기다 보니, 바가지를 들고 늘 뛰어 다녀야 하고, 밥을 짓는 솥은 녹이 썩고, 그릇은 타지고 금이 갔다. 이런 집의 모양인 데도, 이 집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며느리를 대하는 시집 식구들은 어떠한가. 염치 없는 서방님에 먹성이 큰 시아버지, 게다가 암담 닳은 시어머니인데다가 시아주머니는 불등잔과 같아서 흰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이 켜져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부부만이 오붓하게, 남편과의 機會를 가질 수가 없다. 시누이는 요망스러워, 매사에 마음을 쓰게 한다. 정말 이처럼 고달픈 시집살이라면 차라리 죽어 버릴가, 그러나 죽어버리자니 아직 청춘이라, 생을 단념하기엔 미련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살아 나가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씩씩하게 풍자 하고 있다.

<sup>1</sup>씨아방은 <sup>2</sup>구쟁기 녀이여  
 나를 <sup>3</sup>보민 <sup>4</sup>세 <sup>5</sup>들각 혼다  
 씨어명은 <sup>6</sup>암춌북 녀이여  
 나를 보민 <sup>7</sup>조그뭇 혼다  
 씨누인 <sup>8</sup>코생이 녀이여

- 1. 시아버지 2. 소라
- 3. 보민 4. 혀 5. 꿈쩍
- 6. 암전북
- 7. 꿈쩍 움직이는 모양
- 8. 바닷고기의 이름(약씩바르고 노랗다)

나를 보민 <sup>9</sup>호로룩 혼다  
 서방님은 <sup>10</sup>문개 녀이여  
 나를 보민 <sup>11</sup>언주와 <sup>12</sup>안나

9.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양  
 10. 문어  
 11. 싸잡아 12. 안은다

(解)

시아버지는 소라의 녀이다,  
 나를 보면 혀를 꼼짝 한다.  
 시어머니는 암컷의 전복 녀이다,  
 나를 보면 꼼쩍 움직인다.  
 시누이는 코생이 녀이다,  
 나를 보면 재빠르게 행동한다.  
 서방님은 문어 녀이다,  
 나를 보면 껴안으려 덤벼든다.

시아버지는 구쟁기 <소라>의 녀인가? 나를 보기만 하면 꼼쩍 놀라는 듯 外面한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암전복 녀인 듯, 머느리인 나를 보면 짜그락 하는 소리를 내듯 하여, 따뜻한 말로 대해 주지 않는다. 그뿐이라, 시누이는 코생이란 물고기 같아서 약삭 빠르게 나를 따돌리고 外面한다. 그러면, 서방님은 어딘가, 나를 보면 문어가 기다란 문어 발로 거두어 안듯 나를 끌어 안으려 하니, 난처할 때가 많다. 이 모든 것은 시집에서의 家族과 對人 관계이며 머느리를 對해 주는 분위기를 그린 것이다. 역시 난처하고 괴로운 일이 계속되는 시집살이이다.



씨집더레 <sup>1</sup>가노령 <sup>2</sup>향건  
<sup>3</sup>어육 <sup>4</sup>밭으로 <sup>5</sup>길이나 나라  
 손을 <sup>6</sup>비영 되돌아 오게

- 1. 간다고하면
- 2. 역세풀 3. 밭으로
- 4. 길이나
- 5. 베어서

( 解 )

시집으로 가는 것이라면  
 역세풀 밭으로 길이나 나라  
 손을 베어서 (핑계로) 되돌아 오게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가는 것은 싫은 것인가보다. 사랑하는  
 남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빨리 돌아 가야 하지 않은가? 그  
 런데, 왜 가기가 싫다는 것일까? 그것은 고된 시집살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역세밭으로 길이 난다면 손을 베어 그 핑계로  
 되돌아 오고 싶다는 것이다.

어멍 <sup>1</sup>신디 날 <sup>2</sup>가랭 <sup>3</sup>향마  
<sup>4</sup>왕대 <sup>5</sup>족대 <sup>6</sup>엇베인 <sup>7</sup>그르로  
 신을 <sup>8</sup>벗엉 새 놀듯 혼다

- 1. 제신데 2. 가라고 3.하면
- 4. 5. 대나무의 종류
- 6. 비껴벤
- 7. 벤그루로
- 8. (신을)벗어서

(解)

어머니 제신데 나에게 가라고 하면  
 왕대 죽대 비스듬이 벤 그루 위를  
 신을 벗어서라도 새가 날듯 달려 간다.

역시 시집살이는 고된 것인가 보다. 그러기에 친정 어머니께  
 가라는 승락만 떨어지면 날카로운 대나무 벤 그루라도 관여하지  
 않고 새가 날듯이 뛰어 간다.

<八字의 노래>

<sup>1</sup>가당 <sup>2</sup>오당 만난 님은  
 정으로나 <sup>3</sup>살아가곡  
<sup>4</sup>예문에장 드린 님은  
 법으로나 살아가곡

1. 2. 가다오다  
 3. 살아가고  
 4. 예를 갖추어 식을 올린

(解)

가다 오다 만난 임은  
 情으로 살아 가며  
 예를 갖추어 식을 올린 사람은  
 법도를 따라 살아 간다.

夫婦가 함께 맺어 질 때는 禮式을 올리게 된다. 그래서 社會  
 的으로 공인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쉽게 헤어질 수도 없다. 이  
 것이 法道이다. 그러나, 가다 오다 만나서 맺어진 부부는 情이 없

으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女子편에서는 늘 不安하기도 하다. “어쩌면 나는 좃겨 나는 몸이 되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 이것도 八字인 것이다.

<sup>1</sup>가당 <sup>2</sup>오당 만난 님은  
<sup>3</sup>괴목낭 정반에 <sup>4</sup>모밀범벅  
예문에장 드린 님은  
<sup>5</sup>은양푼에 <sup>6</sup>참쌀범벅

1. 2. 가다오다가  
3. 괴목나무쟁반 4. 메밀범벅  
5. 은양푼에 6. 참쌀

( 解 )

가다 오다 만난 임은  
괴목 나무 쟁반에 메밀 범벅을 주고  
예문 예장 드린 님에게는  
은 양푼에 참쌀 범벅을 드린다.

이 노래 역시 夫婦가 사는데 있어 그 맺어진 節次와 格式을 主要視한 內容이다. 正式으로 婚禮를 치러 맺어진 夫婦와 그냥 만나서 사는 男女의 社會的 公認은, 非但, 濟州島 民謠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위 民謠에서는 婚禮를 치른 夫婦는 難關에 부딪치더라도 法과 道理가 있으니, 그만큼 대우를 받는 例로서, 이는 禮의 尊嚴性을 노래한 民謠라 하겠다.

< 自 歎 歌 >

가지 <sup>1</sup>외도 <sup>2</sup>아니여 마는  
<sup>3</sup>싶에 마다 열어라 혼다

1. 오이 2. 아니다 마는  
3. 잎

먹으라고 씨라고 <sup>4</sup>ㅎ난  
<sup>5</sup>가지낭게 <sup>6</sup>모람이 연다.

- 4. 하니까
- 5. 가지나무에
- 6. 모람 열매가

(解)

가지나 외가 아니다마는  
잎마다 많이도 여는구나  
먹을려고 씨를 뿌렸는데  
가지 나무에 모람이 여는구나

가지 <sup>1</sup>좃고 <sup>2</sup>섞 좃인 낭게  
여름이나 <sup>3</sup>두물이 열라  
한 가지나 <sup>4</sup>이성당 훈게

- 1. 좃고      2. 잎
- 3. 드물게
- 4. 잘크게

< 金榮敦 · 濟州島 民謠에 있어서의 비유법수사,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p.25. >

(解)

가지가 좃고 잎이 좃은 나무에  
열매나 드물게 열어라  
한 가지라도 훌륭히 자라게

<sup>1</sup>객사 뒤에 <sup>2</sup>상거렌 낭게  
여름이나 두물이 열라  
섞을 <sup>3</sup>재완 <sup>4</sup>홍글엄서라

- 1. 객숙      2. 심었던
- 3. 겨워서    4. 흔들고 있더라

( 解 )

客 舍 뒤 에 심 었 던 나 무 에  
열 매 나 드 물 게 열 어 라  
앞 이 겨 워 흔 들 거 리 드 라 .

貧 困 한 生 活 에 子 女 를 많 이 나 서 苦 生 하 는 노 래 이 다 . 나 무 의 열 매 에 비 유 한 이 노 래 에 서 열 매 만 많 이 열 지 말 고 하 나 라 도 크 게 열 매 를 열 게 하 여 恂 恂 히 크 길 바 라 는 內 容 으 로 , 이 른 바 , 요 즘 말 하 는 들 만 낳 고 잘 기 르 자 는 뜻 과 같 다 고 할 것 이 다 . 特 히 濟 州 島 의 婦 女 子 들 은 男 子 보 다 , 더 勞 動 이 나 家 事 에 活 動 해 야 하 는 風 俗 에 서 苦 生 때 문 에 오 는 , 自 然 發 生 的 “ 소 리 ” 라 할 것 이 다 .<sup>22)</sup>

<sup>1</sup>강담 눈에 <sup>2</sup>출나룩 <sup>3</sup>갈안  
하늘님이 비 <sup>3</sup>아니주난  
불휘들이 <sup>4</sup>애 <sup>5</sup>몰람서라

- |  |          |         |
|--|----------|---------|
|  | 1. 천둥지기  | 2. 갈고서  |
|  | 3. 아니주니까 |         |
|  | 4. 창자    | 5. 모르더라 |

( 解 )

강담 눈에 찰 벼를 갈고서  
하느님이 비를 아니 주시니  
뿌리 들의 애가 마르고 있더라 .

註 22 ) 金榮敦은 이 民謠를 「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p.25」에 수록된 論文 “ 濟州島 民謠에 있어서의 譬喩法修辭”에서 「子息이 늘어감을 비유한 노래다. 生活苦에 허덕이는 處地에 자꾸만 흥부의 자식들처럼 늘어만 가는 식구를 슬쩍 나무열매에 譬喩했다」라고 論述했다.

여기서, 뿌리들의 “애”란 自身の 애요, 농부의 마음이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水害나 旱害의 위협에 걱정 근심하는 내용이다. 이일저일 모두가 苦生과 피땀어린 努力의 結晶이며 苦生의 結實임을 노래한 이 民謠를 보더라도 이만큼 濟州島에서의 生活이란 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sup>1</sup>구관이엿 <sup>2</sup>해로도 말라  
 신관이엿 <sup>3</sup>일컫도 말라  
<sup>4</sup>산지물 사흘 <sup>5</sup>먹으난  
 원의 공수 혼 공술러라

- 1. 구관이라고 2. 해롭게도
- 3. 일컫지도
- 4. 제주시에 있는 음료수
- 5. 먹고나니

(解)

舊官이라고 해롭게도 말 것이며  
 新官이라고 칭찬도 말라  
 山地 물 사흘 먹으니  
 飮이란 별술은 한가지 더라.

어렵고 고통된 生活 속에서 官吏의 형포가, 또한 심했던 모양이다. 舊官이라고 해롭게 비난하지 말 것이며, 또 新官이라고 너무 기대할 것도 못된다. 新官이 赴任해서 모두들 좋다고 期待했더니 山地물을 사흘 먹고 나니 옛날의 舊官처럼 물들어, 그전의 官吏들과 다를 바 없이 되고 말았다는 것인데, 그 地方 困窮에 同化되어버린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런일 亦是, 濟州島에서만이 아니고 우

리 나라의 고질적 병태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表現이 率直하다.

<八字노래>

나 <sup>1</sup> 전생은 누룩의 전생이여		1. 전생은
<sup>2</sup> 누룩ㄹ차 <sup>3</sup> 씩이멍 <sup>4</sup> 살암저		2. 누룩과 같이 3. 썩이면서
		4. 살고 있다.

<金榮敦·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p.20>

(解)

나의 前生은 누룩의 전생이다.

누룩같이 (속을) 썩이면서 사는구나!

이는 운명의 비유를 노래한 民謠이다. 前生の 因緣을 누룩에 비유했다. 누룩은 發酵하는 것이 그 使命이며, 運命이다. 이승이 前生の 緣이라면, 누룩같이 속을 썩이면서 世上을 살 수밖에 없다. 흔히들 속을 태운다고 하지만 태우는 것은 잠시동안이며, 一時的인 것이라 한다면 속을 썩이는 것은 오래오래, 그리고 썩고 나서도 오래도록 냄새가 나는...그러한 運命을 지낸 것이 人生이라 할까?

<自 歎>

<sup>1</sup> ㄹ좁쌀 <sup>2</sup> 양숙을 지영		1. 작은좁쌀 2. 양식을
지주섬을 다 <sup>3</sup> 돌멍 보라		3. 돌면시
날만 <sup>4</sup> 전생 이나 이 <sup>5</sup> 셔냐		4. 전생 5. 있더냐

날만	못훈	정녀도	산다	
날만	못훈	시녀도	산다	

(解)

가늘고 작은 좁쌀 양식을 줍어지고  
 제주섬을 다 돌며 보니  
 나만큼 궂은 前生 지닌이 있더냐  
 나만 못한 貞女도 살고  
 나만 못한 侍女도 잘 산다.

누구나 自己의 運命을 기구하다고 보고, 苦生과 설움을 더 겪는 것 처럼 보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濟州섬을 다 돌아 다니며 봐도, 나와 같은 기구한 八字를 지닌 사람은 없을 것이라 했다.

나	전성은	<sup>1</sup> 궂어	<sup>2</sup> 나난		1. 궂어서	2. 낮으니	
나	막신	<sup>3</sup> 시녕	돌다리		<sup>4</sup> 볼듯	3. 신고서	4. 밟아 걸듯
왈각	질각	소리만	<sup>5</sup> 남저		5. 나는구나		

(解)

나의 前生은 궂은데 이승에 태어나서  
 나막신을 신고 돌다리를 밟아 걸듯  
 왈각 질각 소리만 나는구나

내 前生은 틀림없이 나쁜 것이었나보다, 그것이 나의 四柱八字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막신을 신고 돌다리를 밟아 건너듯 월각달  
 각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는 내 生活이다. 소리없이, 소문없이 和  
 平하고 安樂하게 지내고 싶은게 내 所願인데 나는 어찌자고 이마  
 을 저 마을, 이 구석 저 구석마다 언짢은 소문이 들도록 소리만  
 나게 마련인가, 이것은 듣기 싫은 口癖이기도 한데 나의 運命으로  
 돌려야 할까?

( 4 ) 運 命

八字니 運命이니 하는 것은 當場에 處해 있는 身勢를 聯想할  
 수 있다.

주어진 運命을 甘受하는 우리네, 이를 反撥할 줄 모르고 克服하  
 는 것을 美德으로 알고 살아 왔다. 韓國 民族의 보편적 情緒를  
 우리는 여기서 切實히 부딪치게 된다. 非但 이러 運命의 絕所가  
 濟州島 民謠에서 뿐이라! 멀리는 新羅 鄉歌의 「處容歌」에서, 그리  
 고, 別離의 情恨을 노래한 麗謠 「가시리」에서, 그리고, 最近에 와  
 서 金素月の 「진달래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  
 기서는 運命을 노래한 濟州島 民謠를 吟味해 본다.

<시집살이 노래>

가라 오라 <sup>1</sup>드리는 <sup>2</sup>집이  
<sup>3</sup>도랑들멍 삼년을 <sup>4</sup>사난  
 가렌 말이 <sup>5</sup>저절로 잇었더라

- |         |        |
|---------|--------|
| 1. 내 쫓는 | 2. 집에서 |
| 3. 돌아들며 | 4. 사니까 |
| 5. 저절로  | 잇었더라   |

( 解 )

가거라 오거라 내쫓는 집에서  
 돌아들며 3년을 지내니  
 가란 말을 저절로 잊어버리더라.

시집살이의 고됨과 또 익숙해 지거나 서로의 이해를 얻기 전의  
 어려운 처신을 노래한 것으로, 시집에서의 며느리 박대는 옛날에 더  
 욱 심했던 것 같다. 내 쫓기까지 하는 구박에도 참으며, 되돌아  
 들고, 돌아 가는 척 하다가도 돌아 들어오길 삼 년,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가란 말도 없다. 이견, 그동안 아기가 태어나고, 그래  
 서 헤어질 수 없는 人倫이 얽히고 情도 깊어졌으리라.

강남서도 <sup>1</sup>날아온 생이야  
 일본서도 날아온 생이야  
<sup>2</sup>오늘가져 <sup>3</sup>낼 가져 혼계  
<sup>4</sup>청대입에 <sup>5</sup>촌 이슬 느련  
<sup>6</sup>날개 젖언 <sup>7</sup>못놀암서라.

1. 날아온 새야  
 2. 오늘간다 3. 내일 가겠노  
 라 한계  
 4. 청대입에 5. 차가운 이슬  
 내려  
 6. 날개가 젖어 7. 못날고  
 있더라

< 金榮敦 · 국어국문학 22 , 국어국문학회, p.21 >

( 解 )

강남에서 날아온 새야  
 일본에서 날아온 새야

오늘 가겠노라 내일 가겠노라 하는게  
 청대 앞에 찬 이슬이 내려서  
 날개가 젖어서 못 날고 있더라

江南이나 日本에서 날아온 새는 대나무 앞의 찬 이슬로 날개가 젖어서 못날아가듯, 시집살이에 얽매인 自身은 시집이란 울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自身の 身勢는, 흡사 「새」와 비슷하다고 비유한 切實한 表現이기도 하다.

어떤 <sup>1</sup>생인 해낮에 <sup>2</sup>울곡  
 어떤 생인 <sup>3</sup>밤에 울곡  
 요 생이 저 생이  
 날 닮은 생이  
 밤 낮 몰라 <sup>4</sup>우림서라.

1. 새는      2. 울고  
 3. 한 밤에  
 4. 울고있더라

(解)

어떤 참새는 낮에 울고  
 어떤 참새는 밤에 울고  
 요 참새 저 참새 나를 닮은 참새  
 밤 낮을 몰라 울고 있더라.

이 노래도 自身을 새에 譬喩한 노래로서 낮에 우는 새와 밤에 우는 새가 있는가 하면, 더욱더 기구한 運命을 지닌 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있으니, 이것이, 苦生길이 흰한 八字를 노래한 것이다.

우리 <sup>1</sup> 어머 낄 지운 지게		1. 어머니
벗도 못할 <sup>2</sup> 등지게라라		2. 등에 지운 지게

( 解 )

우리 어머니 나에게 짊어지게 한 지게  
 벗을길 없는 등에 지운 지게일러라.

生前에는 벗어 던지지 못할 運命의 지게, 卽, 宿命을 노래했다.  
 평생에 벗어 보지 못할 지게를 지는 八字, 어찌할 수 없는 運命  
 의 절규이기도 하다.

<sup>1</sup> 시집이엿 <sup>2</sup> 오라랭 혼난		1. 시집이라고 2. 오고나니
씨누이야 <sup>3</sup> 씨가령 말라		3. 시누이 행세로 구박함
<sup>4</sup> 너도 가면 씨집이여		4. 너도가면
잔에 붓은 <sup>5</sup> 참기름이라라.		5. 참기름이다

( 解 )

시집이라고 왔는데  
 시누이야 박대하지 말라  
 너도 가면 시집이다  
 잔에 부은 참기름처럼 외롭게 고립된다.

시집 은 며누리인, 나를 시누이야 너무 박대하지 말라. 장차 너  
 도 시집을 가게 될 것이며, 그 곳이 너의 시집인 바, 너도 지금  
 의 나와 같이 그곳 며느리가 된다. 시누이의 시거드름 함을 욱

하는 노래이다.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고 너도 시집을 가면 나의 立場이 된다. 따라서 너도 시집 식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 잔에 부어논 참기름과 물처럼 외톨백이가 된다.

시집살이에서 서누이 팔시는 어느 地方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다. 이곳 濟州島에서도 例外는 아니다. 이는 女子들끼리 시새움일까? 오라버니와 여동생 사이에 끼어든 울때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 서운함에서일까 ……

<sup>1</sup>넘어가는    <sup>2</sup>심방광    <sup>3</sup>정지  
 요    내    스주    <sup>4</sup>굴리며    도라  
<sup>5</sup>원천강의    <sup>6</sup>스주영    흥건  
<sup>7</sup>우너지는    <sup>8</sup>말양근    가져  
<sup>9</sup>어멍    시영    어멍    <sup>10</sup>원흥멍  
 아방    시영    아방    원흥라  
 원천강의    나    스주    원흥곡  
 원천강의    나    팔제    원흥곡  
 머리나    <sup>11</sup>깎양    절에나    <sup>12</sup>가져

- 1. 지나가는    2. 무당과
- 3. 風水(地官)
- 4. 가리어    달라
- 5. 중국    당나라때    점쟁이
- 6. 사주라    하면
- 7. 울지는    8. 말고간다.
- 9. 어머니가    10. 원망하여
- 11. 깎아서    12. 가자

( 解 )

지나가는    무당과    지관이여! /  
 이내    四柱    보아    주오

원천강이 본 四柱라 한다면  
 울지는 말고 가야겠구나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원망하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원망하랴  
 원천강의 사주를 원망하고  
 원천강의 팔자를 원망하며  
 머리카락 삭발하여 절에나 가겠노라.

지나가는 무당과 風水 地官이여! 이내 四柱八字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 주오. 이 기구한 四柱八字, 지금의 나에게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원망하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원망하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八字, 宿命! 이제, 머리카락 삭발하고 절(寺)로나 가서 중이 될까, 절길 이 목숨,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나 生活의 終了를 意味하며 寺刹을 생각한 것이다.

<sup>1</sup>늦엉 같은 <sup>2</sup>모물광 산디  
 산디쌀은 산넘어 <sup>3</sup>가곡  
<sup>4</sup>나룻쌀은 물넘어 간다  
 불쌍하다 좁쌀신세  
<sup>5</sup>정지간에 <sup>6</sup>내놀암서라

1. 늦게 2. 메밀과 山稻  
 3. 가곡  
 4. 벼쌀은  
 5. 부엌간 6. 놀고 있더라

(解)

늦게 갈았던 山稻와 메밀  
 山稻쌀은 산넘어 가곡  
 벼 쌀은 물넘어 간다.

불쌍하다 좁쌀의 신세

부엌간에서 내놓고 있더라.

濟州島에서는 主食이 보리와 조(粟)였다. 따라서, 主農事가 보리와 조다. 쌀밥은 平常時에 먹는 일이 거의 없었다. 쌀은 “산디(山稻)”라 하는데 濟州島에서 少量의 山稻와 極少量의 水稻가 生産될 뿐이다. 그래서, 陸地部에서 輸入된 쌀에 依存했는데 輸入하는 쌀의 分量도 많은 것은 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山稻를 代用으로 많이 썼다. 이 쌀밥을 “곰밥”이라 부르며, 이 곰밥은 平常時의 食量으로 利用되는 것이 아니고 祭禮때나 名節等, 茶禮를 지낼 때 쓰이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쌀들은 貴하게 淸급되지만, 좁쌀 따위는 貴하게 여겨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自己 身勢를 聯想해 낸 것이다.

좁쌀은 부엌간에서 덩굴다가 천대받다싶이 島民의 食量이 되어야 한다. 四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 孤島에 목숨을 불이고, 나날을 縮念해야 되는 島民, 특히, 華麗한 꿈마저 잊어버린, 婦女子 自己的 모습을 좁쌀에 은유한 心情을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韓國民族이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特히, 濟州島의 島民은 그들의 死活問題가 農事와 海撈에 있었으므로 自然을 숭배함은 勿論, 自然에 順應하는 말하자면, 開拓的 性向보다 順從性이었다.

“自古로 問題를 解決할만한 힘이 없는 사람의 唯一한 무기는 참는 것 뿐이다. 그러나, 참는 것은 完全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

나라 後日의 問題 해결을 엿보는 意義가 더욱 크다.<sup>23)</sup>

그렇기 때문에 어떤일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縮念하면서도 결코 希望을 잃지 않고 죽어서라도 뜻을 이룰 것을 기약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自歎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宿命이라고 甘受하는 것이다.

### ( 5 ) 享 樂

本來 風流를 즐기는 樂天性이 강한 우리 民族이 모든 억압과 노동의 시달림에서 잠시나마 現實을 잊고 人生을 즐기는데서 享樂性을 찾을 수 있다.

“韓國 民謠의 基本的 內容이 嘆息的인 것임은 自他가 公認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탄식은 悲觀이나 염세로만 흐르지 않고 웃음이나 嚮情으로 昇華되고 있다.”<sup>24)</sup>

이는 民族性이 “근기”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거니와 이 슬픔을 오히려 宿命이라 보며 享樂으로 昇華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權勢나 全力이 없고 가난하여 일만 해야 했던 庶民들은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으려고 쉬는 時間이면 노래로 즐겼다.

---

註 23)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湖閣, 1981. p.129.

24) 前揭書, p.133.



노님 나님  
둘이 둥실 너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쌍사랑이로 구나  
아침에 우는 생인  
배가 끓아 울곡  
저녁에 우는 생인  
님이 기리워 울엄저

이 노래는 널리 부리어져, 익히 듣던 노래로서 濟州島에서만이 아니라 全國적으로 불리어 지던 노래이다. 勞動에 시달리면서도 입을 그리는 人間戀情은 人間이기에 있을 수 있는 感情이며 외로움을 노래하는 心情,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쌍사랑을 동경하면서 임이 그리워 우는 저녁새에 비유했다.

享樂性은 宿命思想과 虛無思想等으로 나타났고, 이들 노래는 打令에 많고 戀情謠나 閨房謠에, 그리고 勞動謠에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오돌또기>

한라산 허리에 시러미 익은송 만송  
서귀포 좁너는 바당에 든송 만송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느도 당실 연즈머리로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解)

한라 산 허리에 시로미 ( 나무열매 ) 익은듯 만듯  
서귀포 해너는 바다에 든듯 만듯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너도 당실 연자 머리로 갈까나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한라 산을 중심으로 濟州島의 自然 편모와 生活風俗을 소개하며  
즐거 부르는 노래의 한 곡조이다. 이런경우 장단을 치는 데는 허  
벅 장단을 친다.

지주야 한락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읍내야 축항끝 뱃노래 듣기도 좋고 좋고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느도 당실 연즈머리로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秦聖麒 · pp.171 - 172 - 318 >

(解)

제주야 한라 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읍내의 축항 끝 뱃노래 듣기도 좋고 좋고

등구대 당실 등구대 당실  
 너도 당실 연자머리로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가까나.

역시 濟州島의 地域性을 내세워, 여기서 즐기는 편모를 소개했다.

“自然은 그때 그때의 文化의 函數다” 라는 말이 있다시피, 文化는 그 어느 것보다도 自然과 가장 관계가 깊다. 「自然에 대한 認識, 그것이 곧 文化」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25)</sup>

濟州島에서 비교적 景致가 좋은 곳을 지적하고 그곳으로 앞장서 내가 먼저 갈거나, 하는 식으로 아름다움을 憧憬 하고 여기에 내가 먼저 선두로 간다, 함은 美를 追求하는 心情이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은 自古로, 樂天的 성격 가지고 있어 歌舞를 즐겼을뿐 아니라 俗談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도 泰然自若한 樂天性과 享樂性을 말해 주는 것이다.

< 打 令 >

날 <sup>1</sup> 오랭 <sup>2</sup> 훤다 날 오랭 <sup>3</sup> 훤다	1. 오라고
<sup>2</sup> 웃드르 <sup>3</sup> 비바리 날 오랭 <sup>4</sup> 훤다	2. 두메산골 3. 처녀
오랭 <sup>5</sup> 훤 디는 밤에나 가곡	
귀경 가기는 낮에나 <sup>4</sup> 가주	4. 가자

註 25) 崔珍源, 韓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1. p.4.

(解)

날 오라 한다 날 오라 한다  
 두메 산골 처녀가 오라고 한다  
 오라고 한 데는 밤에나 가고  
 구경 가기는 낮에나 가자

두메 산골에 사는 처녀가 사랑에 응하고 단둘이 만나자는 초  
 청까지 왔다. 얼마나 설레이는 기쁨인가. 그러나, 좀더 여유있게  
 머루어 보자. 그 처녀를 만나는 것은 낮에보다 밤에 만나는 것  
 이, 아기자기 재미있는 사연을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낮  
 에는 景致 좋은 곳에 구경가고 밤에는 그를 만나 보자, 享樂性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말을 <sup>1</sup>타고 <sup>2</sup>꽃밭에 <sup>3</sup>들어가니  
 발톱마다 <sup>4</sup>향내가 <sup>5</sup>나는구나  
 三月春風 지나가니  
 綠陰芳草 時節이 왔구나

- 1. 타고 2. 꽃밭에
- 3. 들어가니
- 4. 발톱 5. 향내가
- 6. 나는구나

(解)

말을 타고 꽃밭에 들어가니  
 발톱마다 향내가 나는구나  
 三月春風 지나가니  
 綠陰芳草 時節이 왔구나

아름다운 春三月과 綠陰芳草 香氣 풍기는 아름다운 自然과 더불어 즐기는 生活을 노래한 것이다.

大體로 享樂을 노래하는 것은 勞動을 할 때나 集團 作業時에도 불리어 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酒宴이나 慶事가 있어, 한 곳에 모여서 노는 場所에서 많이 불리어 졌다. 이 때, 長短을 맞추는 樂器는 「허벅」<sup>26)</sup>으로서 이 허벅을 두드리는 것을 「허벅 장단」이라고 한다. 이 허벅 장단의 소리는 독특한 소리로서 듣기에 좋을뿐 아니라 이런 光景은 陸地部에서는 볼 수 없는, 濟州島 特有의 風俗이기도 하다.

고되고 각박한 島民生活에서도 享樂的 風流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崔珍源博士는

“享樂的 風流를 배척함은 그것만으로서 가능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規範을 이상으로 하는 李朝兩班이라 하더라도 모정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官能的 享樂의 風流를 배척하였다면 그 대신 단 것으로 모정을 매꿔야 할 것이다.”<sup>27)</sup>

역시 享樂的 風流는 兩班에게나, 農漁村의 庶民에게나, 다같이 必要로 하는 것일 것이다.

---

註 26) 「허벅」은 물을 길는 그릇의 一種이다. 濟州島에선 주로 飲料水를 海邊에서 길어오는데, 이때 사용하는 질그릇이다. 큰 꽃병처럼 되어 병목은 짧고, 가운데는 빨록하게 나와 「구덕」이란 바구니에 넣고 등에 짊어지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노래를 할 때 이를 옆으로 눕혀놓고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는데, 이를 두드리는 소리는 독특한 소리를 내며 장구의 대응으로 쓴다.

27) 崔珍源, 韓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1. p.55.

( 6 ) 諧 謔

嚴然한 社會體制속에서 庶民들은 上者나 官吏, 또는 富者들에게 正面 反抗이나 非難은 있는게 普通이다. 따라서, 不滿이 있을 때 諧謔的 노태를 부르며 웃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는 惡意없는 明朗性을 보여주며 그 對象으로는 君主, 官吏, 兩班, 上者, 富者等 人間에 對한 것과 時代的 모순이나 政治的 不滿도 함께 포함된다.

< 諧謔謠 >

<sup>1</sup>권당 권당 불한당  
 아들 아들 <sup>2</sup>도깨 아들  
<sup>3</sup>매누리 매누리 <sup>4</sup>취매누리  
<sup>5</sup>얼래기 <sup>6</sup>챙빔 똥똥이  
 대천바당 매역귀

- 1. 권당 (친척)
- 2. 도리깨 아들
- 3. 며느리 4. 벌레이름
- 5.6. 머리 빗 종류들

( 解 )

권당 권당 불한당  
 아들 아들 도리깨 아들  
 며느리 며느리 취며느리  
 대천 바다 미역 귀  
 얼래기 칭빔 똥똥이

권당, 아들, 며느리 등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며 이 물건들은, 또 있어야 할 대상들이다. 그러나 實際로 對해 보면 기대와는 달라, 失望 시킬 때가 많아, 우리를 슬프게 한

한다는 것을 諧謔的으로 노래한 民謠이다.

<sup>1</sup> 맹질침이 팽풍귀	1. 명질집
<sup>2</sup> 영장밭디 두권귀	2. 초상집
소상침이 장막귀	
대상침이 우넘귀	
<sup>3</sup> 식게침이 새밋귀	3. 제사집
애기난디 <sup>4</sup> 지성귀	4. 기저기
굿흐는디 <sup>5</sup> 오성귀	5. 송낙
<sup>6</sup> 담고냥에 <sup>7</sup> 독다귀	6. 담구멍 7. 도마뱀

“귀”라는 名詞를 내세워 各各 다른 立場과 場所에서 볼 수 있는 對象을 羅列한 노래이다.

<아기를 놀리며>

먹으나 입으나 둥 둥  
 벗으나 굶으나 둥둥  
 둥그래 당실 둥 둥

아기를 손 위에 올려 앉히거나, 무릎위에 안고 앉아, 둥 둥 놀려 굴리면서 하는 노래이다. 비록, 가난속에서 生活하나 잘 먹으나 못 먹으나, 잘못 입으나 子息에 對한 사랑과 情을 읊조린 노래이다.

의 발 돋은 <sup>1</sup>돌치귀

두 발 돋은 가마귀

<sup>2</sup>시 발 돋은 <sup>3</sup>통누귀

<sup>4</sup>늑 발 돋은 당나귀

<sup>1</sup>침떡은 배빌레기

<sup>2</sup>연질민 <sup>3</sup>빈둥이

<sup>4</sup>새민 <sup>5</sup>좁은둥이

<sup>6</sup>곤떡은 해바래기

<sup>7</sup>상외떡은 부푼둥이

1. 돌조개

2. 셋 3. 향로

4. 넷

1. 설기, 시루떡

2. 메밀모떡 3. 빈둥이

4. 중편 5. 접은둥이

6. 쌀떡은

7. 발효시킨 빵처럼 생긴 떡

발이 달린 家具와 動物의 발 수요, 그리고 濟州島 떡들의 이름과 특징을 羅列하고 그 性質을 指摘하여 우리 生活에 가까운 人間像을 풍자한 노래들이다.

( 7 ) 諷 刺

다음은 問答形式의 노래로 人間生活을 풍자한 民謠를 몇 편 살펴 본다.

< 問答歌 >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 간 <sup>1</sup>완디?

<sup>2</sup>똥치 <sup>3</sup>할망침이

1. 왔느냐

2. 똥집 3. 할머니 집에



불 <sup>4</sup>담으레 갔단 왔수다  
 가난 <sup>5</sup>미시것 <sup>6</sup>주어니?  
<sup>7</sup>곤밥 줍테다  
 솟은 미신 솟이라니?  
<sup>8</sup>남솟입테다  
 사발은 미신 사발이라니?  
 검정 <sup>9</sup>독사발입테다  
 솟가락은 미신 솟가락이라니?  
 남솟가락입테다  
 장은 미신장이라니?  
<sup>10</sup>자굴장입테다  
 이불은 미신 이불  
<sup>11</sup>덕갱 <sup>12</sup>누렁 하여니?  
 뒷치 할망 ×가죽 <sup>12</sup>벧겨당  
 덕갱 누렁 홉테다  
 베겐 미신 메게 베영  
 누렁 하여니?  
 뒷치 하르방 × <sup>13</sup>꽃차당  
 베영 누렁 홉테다

4. 담으러  
 5. 무엇      6. 주더냐  
 7. 쌀밥  
 8. 나무솟  
 9. 토기사발  
 10. 자굴이라는 열매로 빛은 장  
 11. 덮고      12. 누우라고  
 12. 벧겨서  
 13. 끊어다가

가마귀를 擬人化하여 人間에 對한 對人關係 및 社會的 대우를 풍자한 노래이다. “무슨 음식을 주더냐?”에서 그 반찬이며 잠 잘 적에 덮고 자는 이불까지 물어보는 形式인데, 貧困하고 어려운

살림에 冷待까지 指摘한 노래이다.

껌 껌 <sup>1</sup>장서방  
 어찌 어찌 <sup>2</sup>살암소?  
 내 어찌 못살리야  
 알롱달롱 저고리에  
<sup>3</sup>비케맹지 <sup>4</sup>깃을 돌고  
 주주맹지 <sup>5</sup>곰을 돌고  
 삼년묵은 <sup>6</sup>크르팠디  
<sup>7</sup>어염마다 <sup>8</sup>돌암더니  
 날 잡으레 <sup>9</sup>오는채시  
 풀 혼 착 오그리고  
 눈 혼 착 <sup>10</sup>쟁기리고  
 으실 으실 오람구나  
 이만 흥민 어떻 흥리  
<sup>11</sup>승풀에나 <sup>12</sup>기여 들저  
 승풀에랑 기여 들영  
 고사린 <sup>13</sup>보민 <sup>14</sup>꺾어버리곡  
<sup>15</sup>가신 <sup>16</sup>봐지민 캐여불곡  
 삼각산이 굽어 올란  
 삼천 <sup>17</sup>막심 집을 짓고  
 스천 막심 <sup>18</sup>울드리에  
 대문 <sup>19</sup>발래 <sup>20</sup>장황 세왕

1. 장끼를 말함
2. 사는가
3. 비껴진명주 4. 깃을
5. 옷고름
6. 곡식나무를 베고난그루터
7. 가장자리 8. 돌고 있노라니
9. 오는사자
10. (외눈으로)쟁그림
11. 수풀 12. 기어들자
13. 보면 14. 꺾어버리고
15. 까시나무 16. 보이면
17. 마음
18. 울타리에
19. 바라보이는 맞은편 20. 장독대

장황 발래 21대왓 \*연  
 대왓 우인 22년출 올련  
 아들 애기 23글칭 \*라  
 딸 애기랑 24조새 \*라  
 25손지 애기 26잔 드리라

21. 대밭  
 22. 년쿨  
 23. 글방(書堂)  
 24. 어리광부림  
 25. 손자 26. 술잔

평을 擬人化하여 요즘 어떻게 사는가? 하는 問安에서 시작하여 이에 대한 對答으로 장끼의 風流的 生活을 그린 것이다. 流配되었던 선비들이 官員의 눈을 피해 山岳 깊숙한 곳에 움막을 짓고 아들, 딸, 손자에게 글을 가르치며 사는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 하겠다.

“濟州は李朝時代には、所謂三千里外の絶島で、政治上の重犯を定配した處である、橋林書院に享祀する金冲菴・宋圭庵・金清陰・鄭桐溪・宋尤庵の内、冲庵・桐溪・尤庵は流人であつた。最近に至りて最も名高い濟州流罪の兩班は金正喜・金允植・李承五・朴泳孝の四士である。濟州には今も善く秋史體を書く人がある。是等の數多き流人等は島に着くと先づ舍主人を定めて此に寄食をなし、特に重罪人が將た牧使に怨を持たれてゐる者でなければ、格別拘束されない生活を許され、附近の子弟に讀み書き詩文を授け、其の日用の衣食の料は家郷の資力之に堪へれば送り、然らざれば自身の稼ぎと島民の情に依りて寒暑を凌ぐ。

濟州는 李朝時代에는 所謂 三千里外の 絶島로서 政治上의 重犯을 定配했던 곳이다. 橋林書院에 享祀하는 金冲菴, 宋圭庵, 金清陰,

鄭桐溪, 宋尤庵 中 冲庵, 桐溪, 尤庵는 流人이었다. 最近에 이르러 더욱 명성이 높은 濟州流罪의 兩班은 金正喜, 金允植, 李承五, 朴泳孝의 四士이다. 濟州에는 지금도 秋史禮를 쓰는 이가 있다. 이들, 여러 流人들은 이 섬에 到着하면 우선 집 主人을 定하고, 寄食을 하며, 特히 重罪人이나 牧使에 怨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外에는 따로 구속하지 않는 生活을 허락하고, 附近의 子弟에게 글을 읽고, 쓰고, 詩文을 가르치게 한다. 그 日用的 衣食은 家鄉에서 보내오고, 그렇지 못하면 自身の 활동으로 民島의 濫情에 依해 寒暑를, 견디어 낸다.<sup>28)</sup>

굶주림에도 焦燥히 서들거나, 누구를 怨望하거나, 絶望함이 없이 도리어 滿足하는 樂天性을 보여주고 있으니 “子曰 飯蔬食飲水 曲肱而之樂亦在其中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의 思想을 濟州島民의 生活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註 28) 高橋亨, 民謠に現はれた濟州の女.

최 철: 설성경, 민요의 연구 < 한국고전비평집 >, 정음사, 1984, p.280.

### Ⅲ. 結 論

濟州島는 우리 나라 民謠의 寶島로서 지금도 수 백종의 民謠가 島民에 依해 불리어 지고 있다. 이는 純粹한 섬의 民謠라는 것 밖에도, 무려 칠천 척이런 높은 漢拏山과 이 靈山을 둘러싼 오만 町步의 大草原에 몇십만 필의 濟州島가 放牧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馬群을 가꾸는 牧夫라 불리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牛馬들을 보살피 길렀는데 그들이 牛馬를 모으고, 또는 쫓고 하며 부리는데 기묘한 소리로 行해 지고 있다. 그들 牧夫의 소리는 처음 듣는 사람들로서는 그저, “어—, 아—” 등의 소리로만 들리나, 사실은 牛馬들은 이 소리에 依해 움직이고, 흠어지고, 모아지는 것인 바 이들 “소리”야말로 歌詞가 붙여지기 以前의 民謠로서, 오늘날 民謠의 起源이 아닐까한다.

모든 民謠는 그 民族의 生活속에서 發生하여, 이것이 一般의 共鳴을 얻어 불리어 지고 있는 것이므로, 民謠야말로, 그 發生地 民衆의 思想感情을 듬뿍 담은, 心琴을 울리는 노래라 할 것이다.

濟州島는 民謠가 많은 고장이다. 濟州島에는 民謠와 함께 傳說도 많은 고장이다. 그리고, 民謠는 그 곳 흠냄새와 山냄새가 더욱 짙게 풍기는, 自然 生長的인데 特色이 있다 하겠다. 무릇, 어느 고장을 勿論하고 民謠와 傳說은 그 고장이 가진 보배로운 歷史이자 文獻이라 할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그 고장의 生活 모습을 잘 나타낸 거울이라 할 것이다. 이런 民謠에는 恨이 있고,

願이 있고, 歎이 있고, 喜悲哀樂이 있으니, 그 고장 住民의 感情이기도 하다. 이것은 恨과 怨이 맺힌 섬살이의 悲曲이 大部分이다. “이어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도 男便을 陸地部로, 或은 中國等地로 장사를 떠나 보내고, 섬안에서는 아낙네들이 男便이 無事히 이어島를 넘거를 기원한다. 이것은 아무리 險難한 水路라도 이어島만 넘으면 平濶해진다는 傳說이 있기 때문이다. 濟州島에 “이어島”가 存在함은 陸地部에 “아리랑 고개”가 存在함과 같다. 陸地部의 “아리랑 고개가 憧憬의 고개며, 離別의 고개인 것같이 濟州島의 “이어도”亦是 憧憬의 섬이며 離別의 섬이다. 이어島를 無事히 넘는다 치더라도 집을 떠난 男便과 아내의 離別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배떠나는 浦口에서 自然發生的으로 또 하나의 民謠가 탄생한다. 그리고 보면 別離 많은 섬에서의 “소리”, 고된 農事일과 勞動에서의 “소리”, 그리고, 生活의 어려움을 吐露하는 “소리”, 이 모두가 民謠를 發生시킨 要因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論述한 濟州島 民謠를 分析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整理된다.

1. 濟州島 民謠는, 그 民謠를 發生시킨 地域的 特性과 方言地域의 特異性때문에 歌詞에 驅使한 用語가 獨特하다.
2. 濟州島의 生活風俗, 卽 鄉土的 生活特性이 있어, 이 모습이 民謠에도 잘 反映되었다.
3. 貧困이 자리잡은 生計를 유지하려면 勞動이나 活動을 많이 해야 하는, 環境 乃至 與件때문에 大部分이 勞動謠로서, 그 노

래에는 勤勉性이 잘 나타나 있다.

4. 本島의 地理的, 政治的, 모든 與件은 不可避한 與件으로 이곳에 사는 島民의 意識構造는 이 모든 不利한 與件을 宿命的으로 받아들여 縮念的이라는 點을 들 수 있다.

5. 濟州島는 “三多의 島”로 알려져 왔으며 그 中 하나는 “女多”의 島인 만큼 당연히 女子들의 活動이 많아, 民謠에도 男性謠보다 女性謠가 더 많다는 點, 等을 들 수 있다.

이제 이 特徵있는 濟州島의 民謠와 民俗을 通하여 濟州 島民이 어떻게 살아 왔고, 또 어떻게 느껴 왔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當面하고 있는 與件앞에서 어떻게 살아 가야 할 것 까지도 생각해 볼 契機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民謠는 작게 보면 鄉土를 代表하는 노래요, 크게 보면 民族 國民의 노래이다. 어느 民族, 어느 國民이건 제각기 民謠를 가지고 있으며, 鄉土에도 제각기 民謠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例로 “아리랑”이란 民謠를 놓고 생각해 보자. 이 “아리랑”은 韓國民謠를 代表한다, 할 것이나 그 地方的 特性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本調아리랑, 旌善아리랑, 密陽아리랑, 珍島아리랑 등으로 鄉土의 特色을 나타내는 것은 民謠가 鄉土를 代表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임을 實證한 것이라 하겠다. 勿論, 民謠는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고, 또 많은 民謠가 우리 입과 눈을 通하여 불리어 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濟州島 民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그 生活風俗이 獨特하다는 데서 그 民謠

도 比較的 獨特하다는 點을 發見하게 된다. 卽 生活과 民謠와는 그 相關關係가 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濟州島에서는 그 生活 모습이나 言語生活이 急速度로 陸地部와 平準化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濟州島 固有의 生活風俗 乃至 言語生活, 여기에는 民謠도 포함해서 消滅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와 原因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강 主要한 要因을 들어 보면, 첫째, 學校教育에서 國定教科書의 普及으로 標準語를 사용하게 되어 言語의 平準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交通이 發達되어 文化 및 學問交流가 활발해 지기 때문에 生活風俗도 平準化 되었다는 點, 셋째, 外國文化의 流入은 本來 島民 固有文化를 밀어 내는 傾向 등으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날로 사라져 가는 우리 文化를 모아 保存하고, 더욱 같고 닦으며, 앞날을 살아가는 指針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大部分은 祖上의 生活을 忘却하고, 歷史를 무시하고, 文化 傳統에 無關心함으로써 歷史도, 文化도, 傳統도 없는 다른 方向으로 비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라져 가는 傳統과 文化遺產을 붙잡고 保全하며 더욱 같고 닦아야 할 使命과 責任이 있다 할 것인바, 民謠의 研究는 그 意義가 크다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任東權：韓國民謠研究，二友出版社，1980。
- 鄭東華：韓國民謠의 史的研究，一湖閣，1981。
- 崔珍源：國文學과 自然，成均館大學校出版部，1981。
- 任東權：韓國民俗學論攷，集文堂，1982。
- 秦聖麒：南國의 民謠，正音社，1979。
- 金大幸：韓國詩의 傳統研究，開文社，1980。
- 최 칠，설성경：민요의 연구，정음사，1984。
- 耽羅文獻集，濟州道教育委員會，1976。
- 高晶玉：朝鮮民謠研究，首善社，1949。
- 梁在淵外：韓國風俗誌，乙酉文庫，1982。
- 金素雲：韓國의 口傳 童·民謠，中央新書，1981。
- 秦聖麒：南國의 民譚，螢雪出版社，1982。
- 徐元燮：鬱陵島 民謠와 歌辭，螢雪出版社，1982。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一湖閣，1965。
- 韓昌榮：濟州道散考，韓一文化社，1982。
- 국어 국문학(22)，국어국문학회，1960。
- 徐元燮：鬱陵島 民謠와 歌辭，螢雪出版社，1982。
- 呂榮澤：울릉도의 傳說，民謠，正音社，1979。

ABSTRACT

A STUDY ON THE FOLK SONGS IN JEJU ISLAND  
- THROUGH THE LIFE OF THE DISTRICT -

YANG KYE GYEO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It is with the folk songs that we recite the feelings of our people. We can find the nature, district temper, and customs in ballads since they have simple and plain appearance of our nation with everlasting history of the nation and as a companion of the people's life. All the transmitted civilian life is integrated in ballads. Like most civilian transmission, they are directly connected with all the area of people's life. When we look upon the ballads as one of the songs which **have formed from national life**, we can see the characteristics of our nation, and **in a narrow sense the ways or the views of life**. In Jeju Island they have not so much farmland, so they usually live on food from the sea. Therefore they work harder than the people in the main land and they are hard-working, diligent **and sincere, help one another** and

cooperative when one is in need. So they have been tempted to sing spontaneous songs when they are at work in cooperation. Therefore most of the folk songs in Jeju Island are ballads with work.

Please don't speak ill of them in case they sing.

Since the work is too difficult to do, we soothe ourselves with songs.

We work hard bending.

We work hard standing.

We try to overcome the hard work with songs.

It may be the songs about the difficulty in the physical labor, and at the same time they calmed their mind with their spontaneous songs. Jeju Island is one of the islands which has fluent ballads and people there have been sung hundreds of ballads. Jeju Island has not only the pure ballads of the Island, but also the great Hanla Mountain and a large area of field and the free horses in the field. In Jeju Island so-called the Shepherds who have been cowboys take care of the horses and cows. When they control the cows and horses by means of gathering and dispersing, they utter some strange voices like "Ah-" or "Oh-".

But in fact the voices make the animals move, scatter and get together. So these voices may be said to have been the originality of the folk songs before it had the words of songs. It can be believed that the folk songs there might have come from the voices in the Island where they have many saying good-byes and just utter them out of poor life and the hard labor.

The analysis and consolidation of these Jeju Island folk songs are followed :

1. Jeju Island folk songs are characterised by the peculiar terminology on account of the district characters and dialect area.
2. They are well influenced by the customs of life and the characters of country life.
3. In straightened circumstances in order to earn living they were likely to work hard - that made them sing ballads of labor with represented their diligence.
4. Geographically and politically Jeju Island was inevitably unfavorable and the people in it had been used to receiving its inevitability of the circumstances.

5. Jeju Island has been called the Island which is rich in three kinds. One of them is numerous women. So it is natural that women should be active and we could find there are more folk songs for women than men.

Now we have an opportunity to consider how the people of the island have lived and felt throughout the characteristic folk songs and ethnic customs of the island, and how they should liv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We know well that there have been many folk songs sung by our Koreans. But the reason I lay an emphasis on the folk songs of Jeju Island is that I can find the folk songs of the island rather peculiar on account of the peculiar customs and ways of life- there is, I believe, a deep correlation between their life and folk songs. But their ways of life and linguistic usage have been changed into those of the main land rapidly, I guess. It informs us of the fact that the folk songs of the island have been disappeared.

And the most major factors of the disappearance of them:

1. In our school education the supply of state books has made them use the standard language like the people of the

main land.

2.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 land have made them have the same ways of life.

3. The inflow of foreign culture has pushed away the proper culture of the island people.

Here we should gather our cultural remains of our ancestors and conserve and enlighten them for our future life. Today many of us are tempted to forget the life, the history, and the traditional culture of our ancestors. I am afraid we may forget that we have our own history, culture, and tradition. Now we have great duty and responsibility to conserve our tradition and culture. And I am positive that this study on the folk songs has a great meaning.